

기본과제 2020-01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개발 연구

박영주 · 김민지 · 정희경

기본과제 2020-01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박영주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민지 (대구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정희경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



박영주 · 김민지 · 정희경(2020).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광역시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구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입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들의 주된 불안요인 범죄발생이며, 여성의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 높음
 -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소는 범죄발생 20.6%, 국가안보 18.6%, 환경오염 13.5% 순으로 나타나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 높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여성의 범죄피해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역의 다양한 여성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하는 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음
 - 이 연구를 통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이해할 수 있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체감도가 높고, 범죄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여성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여성안전정책 검토

1) 여성안전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24제정)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의미함

-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 발전”으로 널리 수용되며, 그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행동, 모든 차원,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음
 -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분야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연자원과 같이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율적 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함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거버넌스이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이 연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대구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을 의미함
- 여성안전 관련 선행연구는 여성폭력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 여성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여성안전정책의 사례와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음

2) 여성폭력 현황 분석

- 여성폭력은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가 2017년 250건에서 2019년 221건으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의 경우 2017년 845건에서 2019년 964건, 가정폭력은 2017년 1,797건에서 2019년 2,290건, 데이트폭력은 2017년 259건에서 2019년 297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1년간의 대구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상담의뢰인은 총 488명이었고, 이 중에서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227명(47%)로 가장 많았으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36명(7.4%)으로 상당한 수준임
 -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의뢰인은 총 452명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

력 166건 순으로 나타남

3) 여성안전 정책 분석

- 대구시 여성안전 정책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교육국과 안전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 대구시의 여성안전 정책은 2016년 까지는 폭력피해자의 예방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주요 방향 역시 폭력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음
 - 2017년부터는 여성안전 목표를 「안전한 여성가족」으로 설정하고, <안심여건과 권리보호>를 방향으로 하여 여성안전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즉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의 예방보호와 더불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함
 - 2019년에는 시민 생활 속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 인력을 증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 환경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 불법촬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함
- 타 시도에서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지원 등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심택배서비스,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원룸촌을 중심으로 안심거울 부착 서비스, 안심마을 만들기 등이 시행됨
 - 서울특별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 서울 세이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단위사업을 진행함.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증거채집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상담, 지원방향 찾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채증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리고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의 주거지 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함
 - 인천시 부평구는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 도로상태가 열악하고, 밤거리가 어두워 범죄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난방지 구역 표시와 LED 벽부 등을 부착하는 등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짐

3. 대구시 여성안전 인식 및 정책 요구도 조사

1) 조사개요

- 대구거주 1년 이상인 20세 이상 대구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안전도 인식과 안전정책 요구를 파악하였음
 - 조사대상의 범위는 20세 이상의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구별·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함
 - 안전인식도는 전반적 안전인식, 유형별 범죄로부터의 안전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안전도가 높은 이유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안전정책 인식도에서는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안전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를 질문하고,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의 정도와 보완해야 할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여성폭력 피해경험은 유형별 여성폭력에 대해서 피해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는데, 일생에 걸친 피해경험과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6월 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피해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여성안전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여성폭력의 원인과 우선시 되어야 할 안전 정책, 여성안전사업에의 여성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함
 -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체험 조성관련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공간의 필요성과 제공서비스 등 전반에 관하여 질문함

2) 분석결과

- 여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평가한 비율 16.3%에 불과하며, 안전 하지 못한 이유로 여성폭력 간접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여성폭력 대응이나 예방정보의 부족이라고 인식함
 - 대구여성들은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4.2%였으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하였음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32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고(34.5%),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거나(25.3%),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17.7%)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 우선적으로 여성폭력과 관련한 개념이나 유형, 형사사법 처리절차나 피해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 대구여성들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전 사업 중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안심택배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 낮음. 여성안전을 위해 CCTV설치 등 안전시스템이나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전문 인력과 체험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제공이 보완되어야 함
- 대구 여성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보호시설 운영등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았고,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심택배 서비스도 72.2%로 인지함
 -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구 시민들을 찾아가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28.3%만이 인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전문 인력확충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의 제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 일생동안 한 번이라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66.8%, 유형별로 바바리맨 맞닥뜨린 피해 47.3%,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44.3%로 높음
-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바바리맨 접촉,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 친구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지속적 괴롭힘, 성폭력 또는 성적 괴롭힘, 가정폭력 등 한번이라도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6.8%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이러한 폭력예방 캠페인이나 인식개선을 위

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보다 명확히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 필요함

- 2019년 이후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17.1%의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이 8.6%로 가장 높았음
-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피해경험 46.8%,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24.7%, 바바리맨 23.8%,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 15.9%, 가정폭력 15.2%, 지속적 괴롭힘 15.2%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피해경험은 46.8%로 나타나 지인으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경우가 상당함
-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간접경험이 24.7%가 가장 많았고, 바바리맨 피해의 간접경험이 23.8% 순으로 나타남
-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은 성폭력 44.0%, 불법촬영 및 유포 17.1%, 지속적 괴롭힘 12.2%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유형별 정보습득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법촬영 및 유포 65.1%,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55.9%의 비율 높음
- 대구여성들은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이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대구여성들은 대구의 여성안전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1.3%,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 32.3%로 높음
- 여성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성들이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를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 활동에 참여 24.9%, 여성들이 여성의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19.8%, 다양한 안전사업에의 여성참여가 19.2%로 나타남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홍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 92.0%가 공감하고 있으며, 공간조성 시 예방체험관의 콘텐츠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대구여성의 92.0%가 공감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간 조성 시 콘텐츠를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8.0%,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 순으로 나타남
- 대구여성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관련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때,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의 구성과 여성폭력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함께 구현될 종합적인 여성안전 예방체험 공간이 필요함

4. 정책제안

1) 결론 및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한 영역인 시민의 의견이 주요 구성요소를 작용하는 것이고, 여성안전정책이라는 점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을 제시하는 것임
- 정책방향은 여성들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종합적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함
-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언론이나 주변에서의 피해 등으로 인한 간접경험 등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 범죄두려움은 생김.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여성안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범죄 대응 정보가 부족할 때 더욱 범죄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종합적인 안전문화 확산으로 전개되어야 함. 폭력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대상별, 범죄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여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 양적으로 여성들의 피해가 많은 부분은 바바리맨 접촉, 대중교통 등의 불쾌한 신체접촉 등이었으므로 대중교통과 관련한 폭력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할 필요 있음

- 여성들이 여성폭력 대응에 있어 필요한 정보, 교육, 대응방법, 안전체험,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안전 테마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2) 여성안전정책 제안

○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홍보 강화

- 정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여성폭력 예방이나 대응정보는 여성들이 인식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예방 또는 대응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여성들에게 안내할 필요 있음
- 여성폭력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4-5분 정도의 교육영상이 제작된다면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의 효과도 를 것이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변화계기가 될 수 있음
-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지 안내한다면 범죄예방 및 대응효과가 높을 것이며 안전문화 가 확산될 수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대구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여성안전 예방체험공간인 여성안전 테마공간 조성함으로써 대구시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과 관련한 두려움 부분을 제안할 수 있고, 대응방법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임. 공간구성은 정보관, 전시·체험관, 안전교육관, 안전소통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정보관에서는 여성폭력 발생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안내하거나, 여성폭력 대응매뉴얼, 관련 보고서 등 제공함
- 전시체험관에서는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잘 접하지 못해서 정보가 부족한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를 포함한 VR 영상을 제작하여 시연할 수 있음. 또한 불법촬영 상황과 장비 등을 구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관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반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집단, 계층, 연령대에 맞추어 대구시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폭력예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함
- 소통관은 대구여성, 유관기관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며, 대구여성들이 안전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의 소통 창구로도 운영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내용	6
3. 기대효과	10
II. 여성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여성안전정책 검토	11
1. 여성안전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3
2. 여성폭력 현황 분석	19
3. 여성안전 정책 분석	23
III. 대구시 여성안전 인식 및 정책요구도 조사	29
1. 조사개요	31
2. 분석결과	34
IV. 결론 및 정책제안	99
1. 결론 및 정책방향	101
2. 여성안전정책 제안	107
■ 참고문헌	119
■ 부 록	122

표 목 차

<표 I-1> 한국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3
<표 II-1> 대구지역 여성폭력 발생 건수/검거건수	22
<표 II-2> 성폭력 피해 유형(대구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2019)	23
<표 II-3> 가정폭력 피해 유형(대구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2019)	23
<표 II-4> 대구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안전 정책 변화	25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32
<표 III-2> 모집단 및 표본수	33
<표 III-3> 설문조사 개요	34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표 III-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전반적 안전 인식도 차이	37
<표 III-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대구시 전반적 안전 정도	39
<표 III-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 안전 인식도 차이	41
<표 III-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대구시 살인, 폭행에 대한 안전 정도	42
<표 III-9>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유	44
<표 III-10>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45
<표 III-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으로 부터 안전 인식도 차이	47
<표 III-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안전 정도	48
<표 III-13>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유	50
<표 III-14>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51
<표 III-15> 여성안전사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53
<표 III-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 사업 인식차이	55

〈표 III-17〉 여성안전 사업의 인지도, 참여도, 중요도 비교	56
〈표 III-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인식차이	58
〈표 III-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일생동안 여성폭력 피해경험 차이	59
〈표 III-20〉 일생동안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유무	60
〈표 III-21〉 여성폭력 신고 경험(일생동안)	61
〈표 III-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피해경험 차이(2019년 이후)	62
〈표 III-23〉 여성폭력 직접피해 경험(2019년 이후)	63
〈표 III-24〉 여성폭력 직접피해 신고경험	64
〈표 III-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차이(2019년 이후)	65
〈표 III-26〉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66
〈표 III-27〉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신고 비율(2019년 이후)	67
〈표 III-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차이	69
〈표 III-29〉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방법 인지	71
〈표 III-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지속발생 원인 차이	73
〈표 III-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정책 지향 가치 차이	76
〈표 III-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의 참여강화 항목 인식 차이	79
〈표 III-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근절위해 필요한 정책 차이	81
〈표 III-3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 인식 차이	83
〈표 III-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고려사항 인식 차이	85
〈표 III-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서비스 인식 차이	88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 흐름도	9
〈그림 II -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OECD)	20
〈그림 II -2〉 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성 인식(OECD)	21
〈그림 III -1〉 전반적 안전 인식도	38
〈그림 III -2〉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 인식도	42
〈그림 III -3〉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유(N=307)	44
〈그림 III -4〉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N=220)	45
〈그림 III -5〉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 인식도	46
〈그림 III -6〉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유(N=146)	50
〈그림 III -7〉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N=328)	51
〈그림 III -8〉 여성안전사업 인지도	52
〈그림 III -9〉 여성안전사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53
〈그림 III -10〉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 사업	54
〈그림 III -11〉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57
〈그림 III -12〉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방법 인지	70
〈그림 III -13〉 여성폭력의 지속적 발생 원인	72
〈그림 III -14〉 여성안전정책 지향가치	75
〈그림 III -15〉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참여의 강화 분야	78
〈그림 III -16〉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80
〈그림 III -1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 필요성 인식	82
〈그림 III -18〉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84

〈그림 III-19〉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주요 제공 서비스	87
〈그림 III-20〉 폭력 안전성 비교	89
〈그림 III-21〉 일생동안 여성폭력 피해 경험	92
〈그림 III-22〉 여성폭력 피해경험(2019 이후)	93
〈그림 III-23〉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2019 이후)	94
〈그림 IV-1〉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정책 방향	106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내용	6
3. 기대효과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국가를 떠나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범죄발생, 국가안보 위협, 자연재해, 질병, 환경오염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주된 불안요인은 바로 범죄발생이다.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소는 범죄발생 20.6%, 국가안보 18.6%, 환경오염 13.5% 순으로 나타나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소로 범죄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1%로 나타나 남성 15.0%에 비해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2018).

〈표 I -1〉 한국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구분	여성	남성	계
국가안보	16.3	20.9	18.6
자연재해	7.0	6.3	6.6
환경오염	14.3	12.7	13.5
인재	8.4	10.0	9.2
경제적위험	11.4	14.2	12.8
도덕성부족	8.1	11.0	9.5
신종질병	3.3	2.5	2.9
범죄발생	26.1	15.0	20.6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5.0	7.1	6.0
기타	0.1	0.2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요소를 줄이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안전의 영역 중에서 이 연구가 모든 안전영역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보다 집중된 한 분야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주된 불안요인이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의 여성안전정책의 분야는 “범죄로 부터의 안전”이며, 특히 여성의 피해가 두드러진 분야의 범죄 성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지속가능한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명령통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행정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거버넌스는 정부-사회-시민의 협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특히, 거버넌스는 자연자원과 같이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율적 관리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윤여창 외, 1994; 김민경, 윤여창, 2018, p. 222).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거버넌스이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이 연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대구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이다.

여성안전정책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껏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여성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¹⁾에서 심화되었고, 일련의 미투사례²⁾를 통해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

1) 뉴시스, 2016.05.21., AP통신 등 외신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조명,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1_0014099003&cID=10101&pID=10100

2) 미투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의 성추문을 폭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 Too)를 달는 것으로 시작되어 직장 및 사업체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SNS를 통해 입증하며 보편화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에 의해 시작되어 검찰 내 성폭력을 시작으로 연예계, 문화예술체육계로 이어졌다(위키백과, 2020.1.29. 일 검색).

한 여성폭력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안전정책을 협의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등과 같은 여성폭력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크다. 또한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³⁾, 클럽 버닝썬 성폭력 사건⁴⁾,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⁵⁾ 등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포함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서는 범죄로부터 여성의 범죄피해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여성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역의 다양한 여성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하는 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찾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대구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구여성을 9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및 두려움과 안전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실태를 직접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어

3) 시선뉴스, 2018.4.14., 부산데이트폭력사건, 왜 강력한 처벌 필요한가,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08>

4) MBC뉴스, 2019.1.31. “그 클럽에만 가면 청진을 잊는다” ?...뭐가 있기에,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4_28802.html

5) 채널A뉴스에 의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성 상대 주거침입이 매일 4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성폭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성폭력과 주거침입 사이의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채널A, 2019. 12.18, “모르는 남자 들어와” ...여성 상대 주거침입 1400건,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0315).

떠하며, 현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인지정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성폭력의 어떤 점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안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이해할 수 있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체감도가 높고, 범죄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이 연구는 여성안전, 젠더폭력 관련 국내외 공식통계 자료와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정책과제와 학술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2) 설문조사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 두려움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범죄예방과 범죄대책에 대한 여성들이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안전 사업이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가를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자문조사

전문가 자문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지가 여성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고, 여성폭력 피해경험과 범죄 두려움의 정도, 범죄 두려움의 원인,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분설결과에 대한 해석을 적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안전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내용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대구여성들의 안전요구와 정책수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은 범정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등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사업의 인지도나 요구도에 관하여 점검을 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구시의 여성안전사업이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많은 여성들이 인식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안전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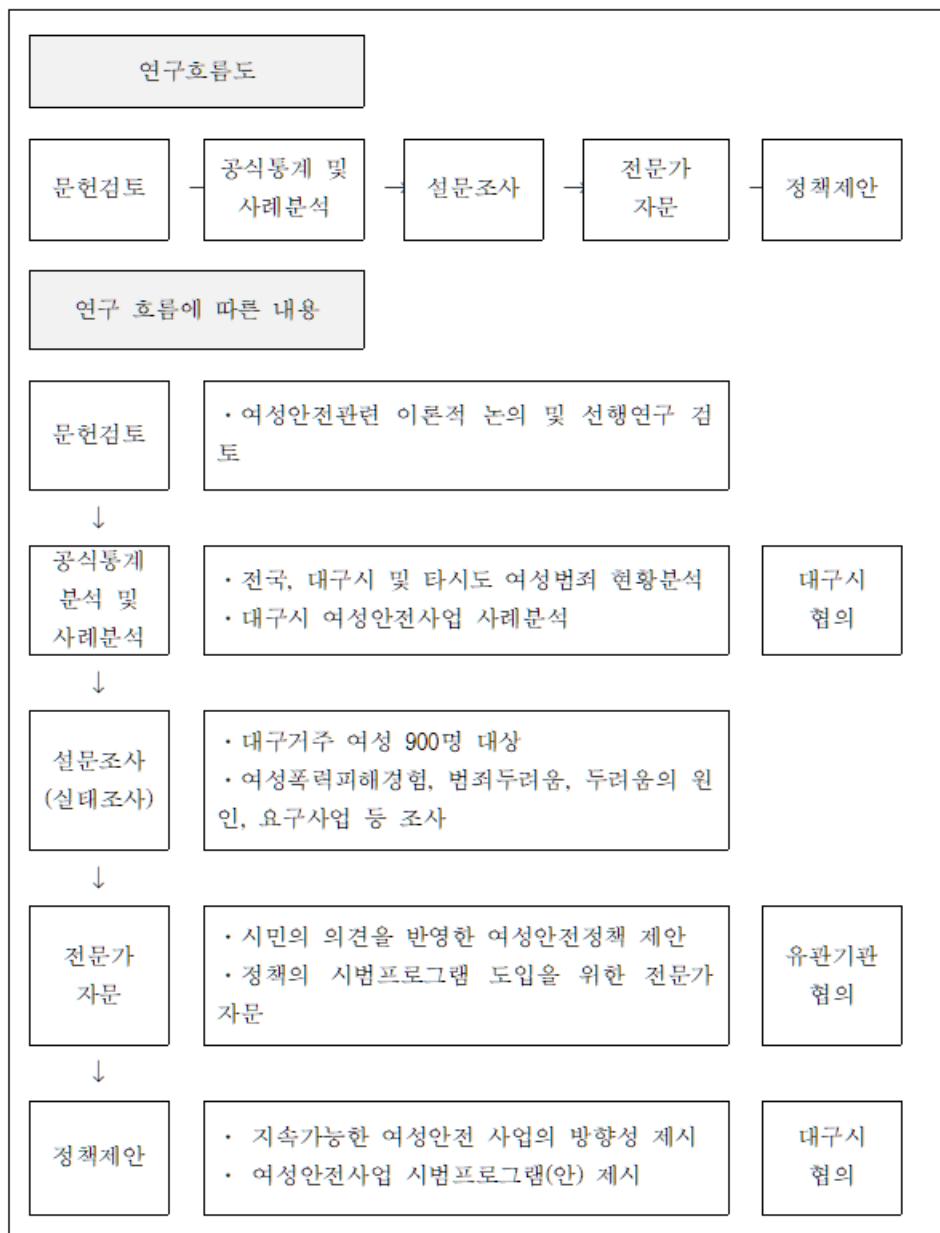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대구여성들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 그리고 여성안전정책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제안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대구 여성들이 요구하는 안전정책이 제안되어,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제2장에서는 여성안전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대구시 여성안전정책을 검토하였다.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공식통계로 제시되는 대구시의 여성폭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안전을 위해서 지역에서의 여성안전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제3장에서는 시민들의 인식도와 사업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즉, 대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된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유형별 여성폭력 직접 폭력피해 경험과 간접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안전 사업의 인식정도와 중요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와 범죄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폭력피해와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구하는 정책의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구여성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여성안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대구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줄이고, 젠더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안전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연구 흐름도에 맞추어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I-1] 연구 호름도

3. 기대효과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우리사회에서 증가하는 여성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의 두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법정부적으로 여성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여성안전을 위한 요구는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여성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지점과 이들이 요구하는 여성안전사업의 방향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통계로 제시되는 대구지역의 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지역에서 수행되는 여성안전사업의 인지도와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구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간 여성폭력경험과 간접경험을 조사하고, 범죄두려움과 그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피해의 실태와 범죄두려움을 실태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대구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안전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범죄두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요구하는 안전사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안전정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여성안전사업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여성안전사업이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고,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여성안전 체험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II. 여성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여성안전정책 검토

1. 여성안전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3
2. 여성폭력 현황 분석	19
3. 여성안전 정책 분석	23

1. 여성안전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여성안전 관련 개념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거론되는 개념으로 젠더폭력이 있다.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운동영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여성대상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제시되었다. 즉 1993년 12월 제48차 UN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차별금지 협약에서 말하는 여성차별에 해당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젠더에 기반된 폭력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로 정의하였다(강희영, 문영민, p.20-21).

이러한 여성폭력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폭력유형으로 개념화 되었다(장다혜, 2019, p. 49). 이후 현 정부 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젠더폭력’을 정책적 영역에서 반영하였는데,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서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기존 법제 하에서 미흡하였던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다(정부업무 평가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이에 따라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24제정)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여성안전 역시 이러한 여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정책을 의미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특히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1970년대 「성장의 한계」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IUCN)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에서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하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후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 의해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김화임, 2015, p. 454-455). 그러나 이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행동, 모든 차원,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명령통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행정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된다. 거버넌스는 정부-사회-시민의 협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거버넌스는 자연자원과 같이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율적 관리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윤여창 외, 1994; 김민경, 윤여창, 2018, p. 222).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다. 즉,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의 핵심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의 집합행동을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김민경, 윤여창, 2018, p. 22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거버넌스이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이 연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을 시행하며, 안전정책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나. 선행연구 검토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의 방향은 크게 여성폭력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 여성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여성안전정책의 사례와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이 지역 여성의 안전현황과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있기에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폭력의 현황이나 연구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기존에 제안된 여성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폭력의 실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방향에서 여성폭력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장기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2017)에서 “바바리맨 피해 경험”,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피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 피해”, “직장 또는 학교에서 성적 피해”, “불법촬영 피해”, “스토킹 피해”, “성폭력 피해” 등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3년 이내 피해율은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피해(30.1%), 직장 및 학교에서 불쾌한 성적 농담 피해(28.8%), 바바리맨 피해(16.6%), 가정폭력(10.1%), 데이트 폭력 등(10.0%), 불법촬영(8.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유형별로 접근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시도별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강희영, 2018; 박영주, 2017; 박영주, 2018)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매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9년에 이루어졌다.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8.1%(2016년 10.5%), 성직폭력이 3.4%(2016년 2.3%), 신체적 폭력 2.1%(2016년 3.3%), 경제적 폭력 1.2%(2016년 2.4%)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의 피해는 감소하였으나 성직 폭력은 오히려 1.1%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81.5%로 나타나 2016년 77.6%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인식도 높았는데, 이웃의 아동학대에 대한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대해서는 94.7%가 부부간 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는 88.3%로 나타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신고인식이 높았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2013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폭력 피해율은 평생 한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은 9.6%(2016년 11.0%)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2016년 10.7%), 강간은 0.1%(2016년 0.1%)로 나타났다.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19세에서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고,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된 발생장소는 강간은 집에서, 폭행·협박 수반한 성추행의 경우 인구 밀집 상업지, 불법촬영은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으로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남녀 모두 90%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법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는데, 가정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대구에서는 2017년 19세 이상의 결혼 경험이 있는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실태와 피해실태를 조사하였다. 가해실태 분석결과 정서적 학대는 18.7%, 신체적 학대는 2.8%, 성적학대는 1.5%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가해경험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정서적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피해나 성적 피해의 경우 여성의 피해경험이 높았으나 정서적 피해경험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박영주, 2017, pp. 43-63).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이외에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관련 실태조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스토킹 피해자 중 가해자에게 2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66.7%로 그 피해가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이 2007년 27.7%에서 2014년 40.5%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9월 시행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 일정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여성응답자의 61.6%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가 실시하였는데(2018, 강희영), 조사결과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중 46.4%가 상대방과 결혼을 했고, 이 중 17.4%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 부산, 수원 등에서도 데이트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데이트기간이나 대상을 한정하지 않거나 데이트폭력 발생기간이나 피해경험을 1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아 과거 데이트 경험 과정에서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데이트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데이트폭력이 과다측정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구에서도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과거 데이트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근 1년 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데이트폭력의 유형별로 다소 차

이는 있으나 성적 폭력에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통제피해의 경우 여성은 57.5%, 정서적 폭력의 경우 여성의 26.5%,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16.8%, 성적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16.8%로 연인사이에서 통제피해와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박영주, 2018, pp. 41-56).

둘째, 정책적인 방향에서 여성안전정책의 사례와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는 여성안전현황과 위협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거나(장미혜, 2015),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이나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영희 외, 2015; 박영주 외, 2014; 박금식 외 2011). 이처럼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여성안전에 관한 연구들의 기저에는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약자이기에 활동시간이나 공간사용,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폭력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안전약자인 여성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안전한 지역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장미혜(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112 신고, 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4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CCTV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가정폭력 재범방지 알림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 안전 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기반 한 연구(박영희 외, 2015; 박영주 외, 2014; 박금식 외, 2011)는 지역여성의 안전인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무질서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안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중장기 방향 정립을 위한 강희영(2017)의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정책과 분야별 안전정책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안전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안전정책의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안전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여성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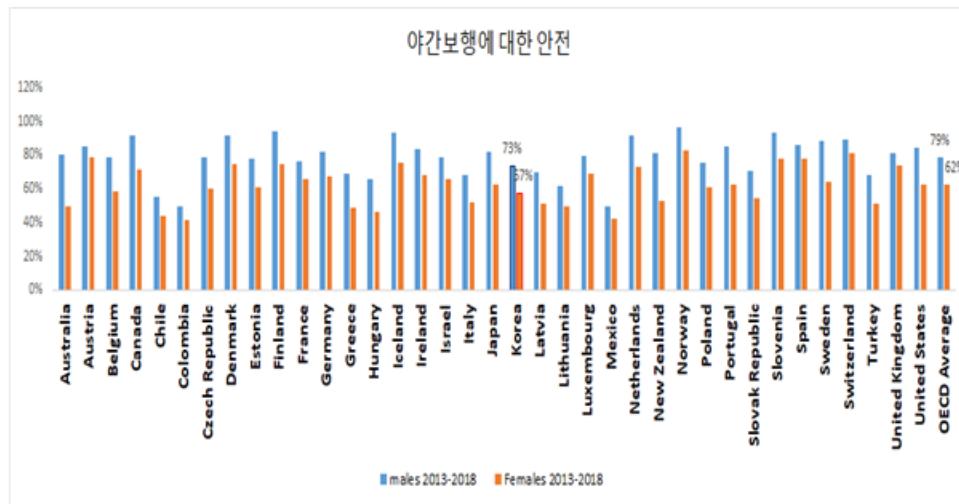
이외에도 여성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연구(박영주, 2019)에서는 대구지역의 112 신고와 범죄발생율과 같은 범죄위험성, CCTV, 가로등, 비상벨 등과 같은 안전망을 분석하여 여성안전의 사각지대나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폭력예방 캠페인 및 인식개선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2. 여성폭력 현황 분석

가. OECD 폭력 인식 및 현황

국가별로 여성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발생정도를 인식하기 위한 기준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범죄구분 기준과 생산연도가 상이하여 통일적인 지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 OECD DATA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는 OECD 국가의 여성폭력 인식과 안전 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을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안전감을 느낀다. 2013-18년 동안을 비교할 때, OECD 국가평균은 여성들의 62%가 안전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남성들은 79%가 안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남성들의 73%가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들은 57%가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은 여성과 남성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이 OECD에 비하여 취약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II-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OECD)

출처: how's life? 2020, OECD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2)와 같다. 이 지표는 특정 상황에서 남편(또는 파트너)이 아내(또는 파트너)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비율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허용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중국이 33.0%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20.0%로 2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들 중국과 독일에 이어 18.0%로 3위로 나타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 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성 인식(OECD)

출처:<https://data.oecd.org/inequality/violence-against-women.htm>

나. 여성폭력 발생 현황

공식통계로 나타나는 여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의 경우 2017년 24,106건에서 2019년 23,531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은 2017년 38,583건에서 2019년 49,873건으로 약 1만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경우에는 2017년 10,303명이 검거되었으나 2019년에는 9,858명이 검거된 것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도 2017년 6,465건에서 2019년 5,762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지역의 경우도 전국적 상황과 유사하게 대구의 여성폭력에 대한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845건에서 962건으로, 가정폭력은 1,833건에서 2,290건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2017년 247건에서 2019년 2297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II-1〉 대구지역 여성폭력 발생 건수/검거건수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카페라 등 이용촬영 범죄		
전국	2017	24,106	38,583	6,465	10,303
	2018	23,467	41,905	5,925	10,245
	2019	23,531	49,873	5,762	9,858
대구	2017	845	1,833	250	247
	2018	989	2,064	197	252
	2019	962	2,290	221	297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2020.8.6. 내부협조)

※ 데이트폭력의 경우 발생건수를 경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여성폭력에 대한 공식통계는 우리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건화된 경우만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여성폭력은 발생했지만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사건화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 상담기관의 통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1년간의 대구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상담의뢰인은 총 488명이었고, 이 중에서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227명(47%)로 가장 많았으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36명(7.4%)으로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II-2〉 성폭력 피해 유형(대구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2019)

피해유형	성폭력 상담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 전화	기타
합계(명)	488	151	228	20	36	0	53

출처: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접수상담 통계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의뢰인은 총 452명 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16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 안에는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가정폭력 피해 유형(대구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2019)

피해유형	가정폭력 상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기타
합계	452	166	197	30	6	53

출처: 대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접수상담 통계

3. 여성안전 정책 분석

가. 대구시 여성안전 정책 분석

대구시 여성안전 정책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교육국과 안전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이 수행되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반하여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교육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 대책마련이

중요하게 강조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교육국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대구여성의 전반적인 안전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시의 여성안전 정책은 2016년 까지는 폭력피해자의 예방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주요 방향역시 폭력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상담소를 중심으로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17년부터는 여성안전 목표를 「안전한 여성가족」으로 설정하고, <안심여건과 권리보호>를 방향으로 하여 여성안전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즉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의 예방보호와 더불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의 여성안전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시작한 것은 선도적인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민 생활 속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여성가족청소년국(현재 여성가족교육으로 명칭 변경)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 인력을 증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 환경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여성안전캠퍼스 환경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 불법촬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다(2019년도 주요 핵심사업 보고,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이러한 대구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안전 정책의 변화는 <표 II-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II-4〉 대구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안전 정책 변화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여성행복 대구			안전한 여성가족	
방향	폭력피해자 예방·보호			안심여전 권리보호	
정책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10개소)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405명) · One-stop지원센터(2개소) · 여성안심무인택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2019년 까지) · 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사업 확대(2018년 이후 시민안전실에서 지속) ·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정비사업(2019. 6월 완료) 및 성매매 방지 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 「여성안전 캠퍼스 만들기」 사업 시작(2018년) ·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상시 불법촬영 예방 점검 시작(2019년) ·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 신설(2020년) · 여성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 시작(2020년) 			

출처: 2016년-2020년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주요업무보고

이처럼 대구시의 여성안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의 여성폭력의 심각해지는 경향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변화하는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여성안전 정책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구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구 여성들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 사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안전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 캠페인, 여성폭력 피해상담,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대학가 안심보안관 불법촬영 예방점검, 대학생 안심지킴이 활동,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등 부착 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무인안심택배서비스 등 대표적인 사업을 9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찾아가는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통반장 등, 이주민, 장애인, 노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20명 이상이 모일 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32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781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둘째,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예방캠페인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즉 성폭력·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예방법이나 상담, 피해자 지원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폭력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셋째,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 지원은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해바라기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넷째,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 상담, 치료, 보호,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있으며, 전국적으로 32개의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2).

다섯째, 대학가 안심보안관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사업은 대구광역시 「여성 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가 민간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9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09개 업소 2,227칸의 화장실을 점검하였다(대구광역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학가 안심보안관 활동보고서, p. 7).

여섯째, 대학생 안심지킴이 범죄예방 활동은 대학교 캠퍼스 및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대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밀집지역,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골목길 등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안심지킴이들이 순찰을하거나 캠페인을 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9년 한 해동안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중심으로 603명의 대학생들이 총 53회에 걸쳐 순찰과 범죄예방교육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하였다(대구광역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학가 안전지킴이 활동보고서, p. 5).

일곱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부착은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인접한 지하철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발각의 두려움을, 불법촬영이 두려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등 뒤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구 시에서 두 곳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에 대한 효과성을 인정하고, 대구도시철도에서는 교대역과 영남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여 설치한 바 있다.

여덟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은 CPTED기법에 착안하여 건물, 주거환경 조성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은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CCTV 설치, 벽화꾸미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아홉째, 안심택배 서비스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등 택배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나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택비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 그리고 여성안전 사업에 있어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나. 타 시도의 여성안전 정책 분석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주요 이슈이기에 대

구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지원 등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심택배서비스,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원룸촌을 중심으로 안심거울 부착 서비스, 안심마을 만들기 등은 타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서울특별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 서울 세이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증거채집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상담, 지원방향 찾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채증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의 주거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안심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실 하단의 뚫린 공간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안심보안관이 적외선 탐지기와 전파탐지기를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여성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는 데 집안에서 모니터로 외부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설치,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비상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는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 도로상태가 열악하고, 밤거리가 어두워 범죄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난방지 구역 표시와 LED 벽부 등을 부착하는 등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III. 대구시 여성안전 인식 및 정책요구도 조사

1. 조사개요	31
2. 분석결과	34

1. 조사개요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대구 거주 1년 이상 인 20세 이상 대구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안전도 인식과 안전정책 요구를 파악하였다. 연령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는 각각 200명씩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100명을 할당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였다.

가. 조사내용

여성안전현황과 안전정책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대구의 안전 인식도, 대구시의 안전정책에 인식도, 여성폭력 피해경험 및 범죄유형별 대응정보 습득 정도, 안정정책에 대한 요구도와 여성안전을 위한 예방체험공간 조성에 관한 인식도 등 총 5분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서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설문지」, 「2018 대구 안전프로그램 효과성 분석(2018)」,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장기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2017)」 등을 참고 하였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재구성 하였다.

우선, 안전인식도는 전반적 안전인식, 유형별 범죄로부터의 안전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안전도가 높은 이유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둘째, 안전정책 인식도에서는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안전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를 질문하고,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의 정도와 보완해야 할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여성폭력 피해경험은 유형별 여성폭력에 대해서 피해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는데, 일생에 걸친 피해경험과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6월 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피해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간접피해 경험 역시 함께 조사하여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범죄유형별 대응정보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여성안전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여성폭력의 원인과 우선시 되어야 할 안전정책, 여성안전사업에의 여성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

로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체험 조성관련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공간의 필요성과 제공서비스 등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내용
안전 인식도	전반적 안전인식, 살인·폭행 범죄로부터 안전인식,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인식 등
안전정책 인식도	대구 여성안전 사업에의 인지도 및 참여경험, 중요한 여성안전 사업, 보완해야 할 여성안전 사업 등
여성폭력 피해, 정보습득 정도	여성폭력 직접경험(평생, 2019년 이래 최근 1.5년), 여성폭력 간접경험(2019년 이래 최근 1.5년),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유형, 유형별 범죄대응 정보 습득 등
여성안전정책 수요	여성폭력 발생 원인, 우선시 해야 할 여성안전 정책,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참여,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등
여성폭력 예방체험공간 요구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필요성, 공간조성 시 제공 서비스 등

4. 설문조사 개요

이 연구는 대구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안전정책 인지도, 여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간접 피해경험, 여성안전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여성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조성관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20세 이상의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구별·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은 만 20세 이상 대구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청의 주민 등록인구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였다.

〈표 III-2〉 모집단 및 표본수

구 분	대구	모집단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계)	1,028,117	34,809	148,440	77,486	68,486	180,532	180,115	238,184	100,065
20대	149,447	5,941	19,438	10,181	9,818	27,606	25,850	37,382	13,231
30대	148,066	5,398	21,946	8,166	8,551	26,563	22,918	33,821	20,703
40대	199,311	5,349	25,293	11,234	10,462	37,805	40,839	48,131	20,198
50대	218,573	5,883	29,870	17,800	13,191	38,679	38,488	54,367	20,295
60대 이상	312,720	12,238	51,893	30,105	26,464	49,879	52,020	64,483	25,638
구 분	대구	표본 수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계)	900	29	125	62	55	163	158	215	93
20대	200	8	26	14	13	37	34	50	18
30대	200	7	30	11	11	36	31	46	28
40대	200	5	26	11	11	38	41	48	20
50대	200	5	27	16	12	36	35	50	19
60대 이상	100	4	16	10	8	16	17	21	8

실태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에 의뢰하여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3.3 이다. 조사된 설문자료 중 부실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유효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설문자료의 30%에 대해서 전화유선 검증을 거쳐 설문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된 자료는 Coding, Editing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서는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III-3〉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모집단	20세 이상 대구 거주 여성
표본추출방법	대구에 1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여성 중 지역구 인구비례에 따른 연령별 할당(20,30,40,50대 각각 200명, 60대 이상 100명)
표본수	대구시 거주주 중 20세 이상 여성 900명
조사방법	직접방문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0년 5월 20일 - 6월 19일
신뢰도 및 오차범위	신뢰도 95%, 오차범위 ±3.3

2. 분석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우선 연령별 할당 표집을 하였기에 20대에서 50대는 각각 22.2%로 동일하였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11.1%로 나타났다. 기혼 동거의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미혼의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2인 이상으로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88.6%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경우는 9.8%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가 69.2%로 나타났으며, 원룸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17.8%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의 경우는 26.1%로 나타났고, 73.9%는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55.8%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44.2%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3.9%에 불과하였고, 그 뒤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9.0% 학생 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900	100.0
연령	20대	22.2
	30대	22.2
	40대	22.2
	50대	22.2
	60대 이상	11.1
혼인상태	미혼	25.4
	기혼동거	610
	기혼별거	14
	기혼사별	10
	이혼	37
거주상태	1인거주	9.8
	2인 이상(부모, 가족 등)	88.6
	2인 이상(친구, 지인 등)	1.7
학력	중졸이하	1.8
	고졸	17.4
	2년제 졸	17.0
	대졸	54.8
	대학원 이상	9.0
거주형태	원룸 등 다세대 주택	17.8
	단독주택	11.7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69.2
	상가 등 기타	1.3

〈표 계속〉

구분	빈도	비율
전체	900	100.0
거주기간	3년 미만	235
	3년~10년 미만	350
	10년~20년 미만	214
	20년 이상	101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502
	하지 않음	39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6
	101~200만원	67
	201~300만원	152
	301~400만원	198
	401~500만원	160
	501~600만원	129
	601만원 이상	158
직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21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71
	자영업자	80
	대학/대학생	109
	기타	325

나. 대구시 안전 인식도

대구시 안전 인식도는 ‘전반적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안전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전반적 안전에 대한 인식도

대구시의 전반적인 안전 정도에 대해 대구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안전하다’ 5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3.27 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혼인상태, 거주상태, 거주형태, 거주기간, 경제활동, 가구소득,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의 경우는 대구는 전반적으로 안전 하다고 생각하는 점수가 3.41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30대의 경우는 3.15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타 직업군의 경우 예를 들어 주부(무직, 취업 준비생 포함) 등은 3.1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전반적 안전 인식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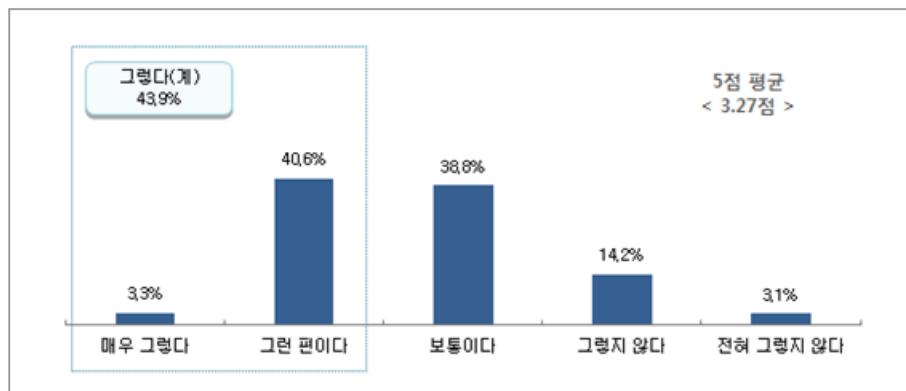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합계	900	3.27	.86	-
연령대	20대	3.41	.86	2.82*
	30대	3.15	.80	
	40대	3.21	.87	
	50대	3.25	.82	
	60대 이상	3.34	.93	
직업	정규 임금근로	3.31	.82	3.596**
	비정규 임금근로	3.22	.81	
	자영업자	3.45	.77	
	학생(대학/대학원)	3.44	.88	
	기타	3.16	.89	

*: p<.05, **: p<.01, ***: p<.001

문항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의 전반적 안전정도에 대해서 여성들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43.9%이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의 경우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55.0%로 높으나 30대의 경우는 37.5%, 40대의 경우는 42.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즉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의 경우는 대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50.1%였지만 주부(기타로 분류되었음)의 경우는 38.2%만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1] 전반적 안전 인식도

〈표 III-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대구시 전반적 안전 정도

구 분		대구시 전반적 안전 정도				
		매우 그렇다	그린 편이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900	30 (3.3)	365 (40.6)	349 (38.8)	128 (14.2)	28 (3.1)
연령대	20대	200	9 (4.5)	101 (50.5)	59 (29.5)	26 (13.0)
	30대	200	2 (1.0)	73 (36.5)	81 (40.5)	41 (20.5)
	40대	200	5 (2.5)	79 (39.5)	78 (39.0)	30 (15.0)
	50대	200	6 (3.0)	75 (37.5)	90 (45.0)	22 (11.0)
	60대 이상	100	8 (8.0)	37 (37.0)	41 (41.0)	9 (9.0)
직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215	7 (3.30)	91 (42.3)	84 (39.1)	28 (13.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71	3 (1.8)	67 (39.2)	70 (40.9)	27 (15.8)
	자영업자	80	5 (6.3)	35 (43.8)	31 (38.8)	9 (11.3)
	대학/대학원생	109	6 (5.5)	57 (52.3)	27 (24.8)	17 (15.6)
	기타	325	9 (2.8)	115 (35.4)	137 (42.2)	47 (14.5)

2)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 부터의 안전 정도

대구의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정도에 대해 대구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안전하다’ 5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3.0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혼인상태, 거주상태, 거주형태, 거주기간, 경제활동, 가구소득,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연령, 경제활동 유무, 가구소득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의 경우가 2.92점으로 나타나 보통이하로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연령대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3.24점으로 상대적으로 보통이상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유무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3.14점이고,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3.02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100만 이하의 소득이 있는 집단이 2.83점으로 살인, 폭행으로부터 대구시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501만원 - 600만원 이하의 집단은 3.20점으로 보통이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도 기타(주부 등)의 경우 2.99점으로 보통이하의 안전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영업자들은 3.31점으로 대구는 살인, 폭행으로부터 보통이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 안전 인식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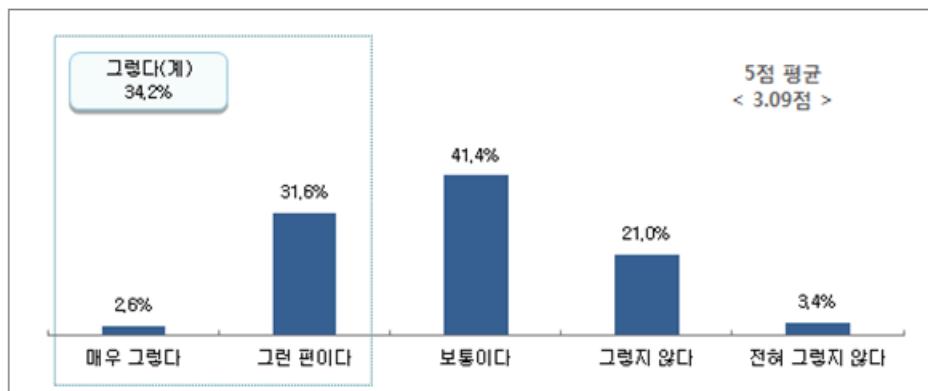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합계	900	3.09	.87	-
연령대	20대	200	3.07	.94
	30대	200	2.92	.78
	40대	200	3.07	.85
	50대	200	3.20	.83
	60대 이상	100	3.24	.94
경제 활동	하고 있음	502	3.14	.87
	하지 않음	398	3.02	.86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36	2.83	.91
	101~200만원	67	2.91	.88
	201~300만원	152	3.03	.87
	301~400만원	198	3.03	.87
	401~500만원	160	3.13	.77
	501~600만원	129	3.20	.90
	601만원 이상	158	3.19	.89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3.16	.86
	비정규 임금근로	171	3.07	.81
	자영업자	80	3.31	.85
	학생(대학/대학원)	109	3.05	.99
	기타	325	2.99	.85

*: p<.05, **: p<.01, ***: p<.001

문항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에서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 정도에 대해서 대구여성들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34.2%에 불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 대구여성의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22.5%에 불과하였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42.0%로 나타나 특히 30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 인식도

〈표 III-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대구시 살인, 폭행에 대한 안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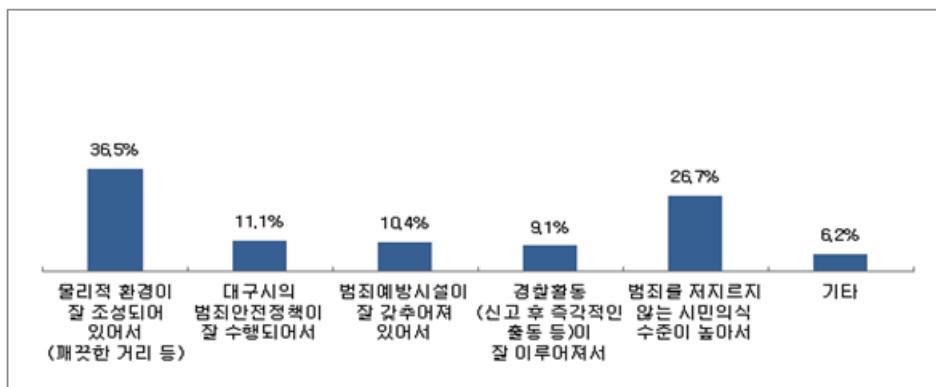
구 분	평균 (점)	범죄로 부터의 안전 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히 그렇지 않다
전 체	900 3.09	23 (2.6)	284 (31.6)	373 (41.4)	189 (21.0)	31 (3.4)
연령대	20대 200 3.08	6 (3.0)	69 (34.5)	68 (34.0)	48 (24.0)	9 (4.5)
	30대 200 2.93	2 (1.0)	43 (21.5)	99 (49.5)	50 (25.0)	6 (3.0)
	40대 200 3.07	2 (1.0)	68 (34.0)	78 (39.0)	46 (23.0)	6 (3.0)
	50대 200 3.21	7 (3.5)	68 (34.0)	89 (44.5)	31 (15.5)	5 (2.5)
	60대 이상 100 3.24	6 (6.0)	36 (36.0)	39 (39.0)	14 (14.0)	5 (5.0)
경제활 동 여부	경제활동 하고있음 502 3.14	15 (3.0)	173 (34.5)	195 (38.8)	106 (21.1)	13 (2.6)
	하지않음 398 3.02	8 (2.0)	111 (27.9)	178 (44.7)	83 (20.9)	18 (4.5)

〈표 계속〉

구 분	평균 (점)	범죄로부터의 안전 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900 3.09	23 (2.6)	284 (31.6)	373 (41.4)	189 (21.0)	31 (3.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36	2.83	2 (5.6)	4 (11.1)	18 (50.0)	10 (27.8) (5.6)
	101만원-200만원 67	2.91	2 (3.0)	15 (22.4)	27 (40.3)	21 (31.3) (3.0)
	201만원-300만원 152	3.03	4 (2.6)	41 (27.0)	71 (46.7)	28 (18.4) (5.3)
	301만원-400만원 198	3.03	-	67 (33.8)	81 (40.9)	39 (19.7) (5.6)
	401만원-500만원 160	3.14	2 (1.3)	52 (32.5)	74 (46.3)	30 (18.8) (1.3)
	501만원-600만원 129	3.21	8 (6.2)	42 (32.6)	51 (39.5)	25 (19.4) (2.3)
	601만원 이상 158	3.20	5 (3.2)	63 (39.9)	51 (32.3)	36 (22.8) (1.9)
직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215	3.17	8 (3.7)	73 (34.0)	86 (40.0)	43 (20.0) (2.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71	3.08	1 (.6)	56 (32.7)	73 (42.7)	37 (21.6) (2.3)
	자영업자 80	3.31	4 (5.0)	33 (41.3)	27 (33.8)	16 (20.0)
	대학/대학원생 109	3.06	4 (3.7)	38 (34.9)	34 (31.2)	26 (23.9) (6.4)
	기타 325	3.00	6 (1.8)	84 (25.8)	153 (47.1)	67 (20.6) (4.6)

한편,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여성 30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그림 III-3]과 같다.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높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6.7%로 상당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시의 범죄안전 정책이 잘 수행되어

서' 11.1%,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10.4%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처럼 대구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직업유무,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3]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유(N=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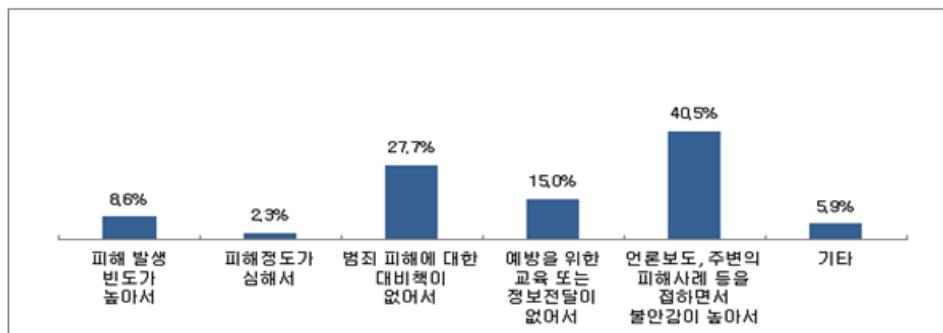
〈표 III-9〉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유

구분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유							χ^2 (df)
	1	2	3	4	5	6		
전체	307	112	34	32	28	82	19	-
	100.0	36.5	11.1	10.4	9.1	26.7	6.2	

1.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
2. 대구시의 범죄안전정책이 잘 수행되어서
3.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4. 경찰활동(신고 후 즉각적인 출동 등)이 잘 이루어져서
5.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6. 기타

*: p<.05, **: p<.01, ***: p<.001

한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220명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또한 2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는 15.0%, ‘피해발생 정도가 높아서’의 경우는 8.6%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4]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N=220)

〈표 III-10〉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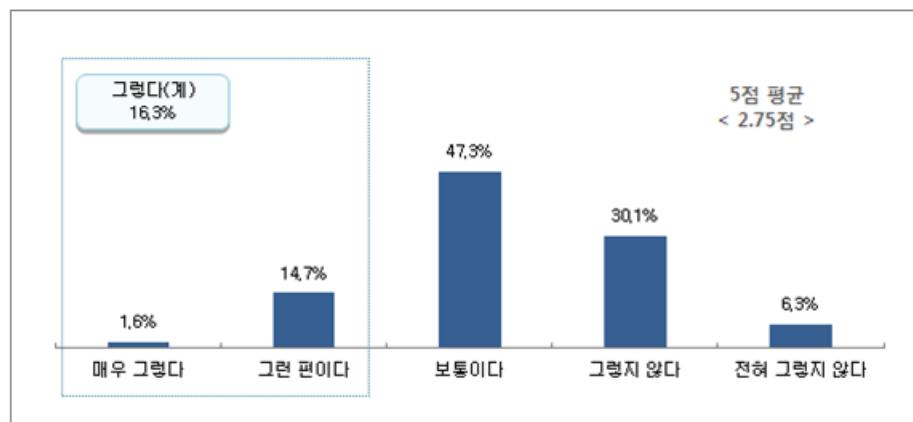
구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1	2	3	4	5	6	χ^2 (df)
전체	220	19	5	61	33	89	13
	100.0	8.6	2.3	27.7	15.0	40.5	5.9

1. 피해발생 빈도가 높아서
2. 피해정도가 심해서
3.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4.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
5.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
6. 기타

*: p<.05, **: p<.01, ***: p<.001

3) 여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정도

대구는 ‘성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에 대해 안전하다’에 대해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안전하다’ 5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2.75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 인식도

그리고 연령, 혼인상태, 거주상태, 거주형태, 거주기간, 경제활동, 가구소득,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연령, 혼인상태, 거주기간, 경제활동 유무,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의 경우 여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2.5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혼인 상태로 보면 미혼의 경우가 2.6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경우(2.67)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2.80)에 비해 여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특히 학생(대학/대학원)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54점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으로 부터 안전 인식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합계		900	2.75	.837	-
연령대	20대	200	2.57	.893	9.500***
	30대	200	2.59	.730	
	40대	200	2.75	.781	
	50대	200	2.99	.844	
	60대 이상	100	2.93	.879	
혼인 상태	미혼	229	2.60	.890	2.480*
	기혼동거	610	2.80	.824	
	기혼별거	14	2.85	.949	
	기혼사별	10	2.80	.632	
	이혼	37	2.67	.626	
거주 상태	1인 거주	88	2.67	.867	0.993
	2인 이상(가족 등)	797	2.76	.832	
	2인 이상(친구 등)	15	2.53	.915	
거주 형태	원룸 등 다세대	160	2.62	.866	1.731
	단독주택	105	2.82	.790	
	아파트, 오피스텔	623	2.76	.840	
	상가 및 기타	12	2.91	.514	
거주 기간	3년 미만	235	2.62	.823	2.750*
	3년-10년 미만	350	2.77	.820	
	10년-20년 미만	214	2.77	.870	
	20년 이상	101	2.89	.835	
경제 활동	하고 있음	502	2.80	.861	5.616*
	하지 않음	398	2.67	.801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36	2.77	.796	1.407
	101-200만원	67	2.53	.784	
	201-300만원	152	2.73	.851	
	301-400만원	198	2.68	.875	
	401-500만원	160	2.80	.750	
	501-600만원	129	2.82	.842	
	601만원 이상	158	2.82	.878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2.84	.896	3.317*
	비정규 임금근로	171	2.77	.751	
	자영업자	80	2.90	.850	
	학생(대학/대학원)	109	2.54	.976	
	기타	325	2.70	.772	

*: p<.05, **: p<.01, ***: p<.001

한편, 여성폭력에 대한 안전 정도를 항목별 비율로 살펴보면, 연령과 혼인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는 26%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혼인상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을 한 경우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4%에 불과하여 미혼이나 기혼자에 비해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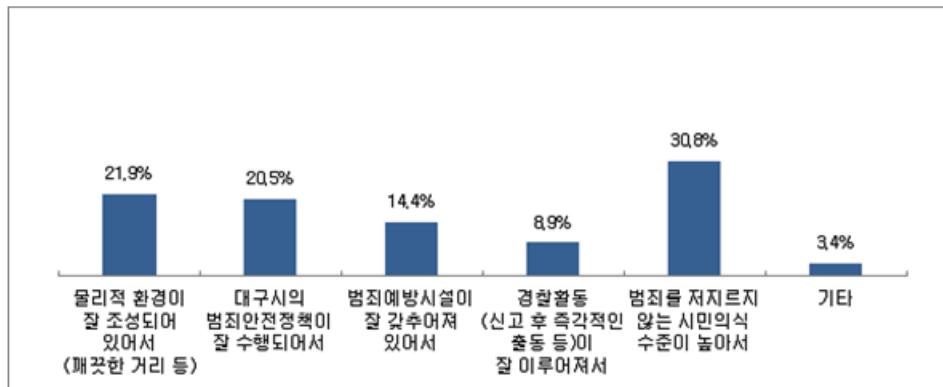
〈표 III-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안전 정도

구 분	평균 (점)	여성 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진히 그렇지 않다	
전 체	900	2.75	14 (1.6)	132 (14.7)	426 (47.3)	271 (30.1)	57 (6.3)
연령대	20대	200	2.58 (1.0)	27 (13.5)	77 (38.5)	72 (36.0)	22 (11.0)
	30대	200	2.60 (.5)	1 (6.5)	103 (51.5)	70 (35.0)	13 (6.5)
	40대	200	2.75 (.5)	1 (16.0)	90 (45.0)	70 (35.0)	7 (3.5)
	50대	200	2.99 (4.5)	9 (17.5)	109 (54.5)	39 (19.5)	8 (4.0)
	60대 이상	100	2.93 (1.0)	1 (25.0)	47 (47.0)	20 (20.0)	7 (7.0)
혼인 상태	미혼	229	2.61 (1.3)	3 (13.1)	94 (41.0)	78 (34.1)	24 (10.5)
	기혼동거	610	2.80 (1.8)	11 (15.6)	299 (49.0)	174 (28.5)	31 (5.1)
	기혼별거	14	2.86	4 (28.6)	5 (35.7)	4 (28.6)	1 (7.1)
	기혼사별	10	2.80	1 (10.0)	6 (60.0)	3 (30.0)	
	이혼	37	2.68	2 (5.4)	22 (59.5)	12 (32.4)	1 (2.7)

〈표 계속〉

구 분		평균 (점)	여성 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900 2.75	14 (1.6)	132 (14.7)	426 (47.3)	271 (30.1)	57 (6.3)
현 주소지 거주기 간	3년 미만	235 2.63	2 (.9)	28 (11.9)	104 (44.3)	83 (35.3)	18 (7.7)
	3년-10년 미만	350 2.77	7 (2.0)	48 (13.7)	172 (49.1)	105 (30.0)	18 (5.1)
	10년-20년 미만	214 2.78	4 (1.9)	34 (15.9)	102 (47.7)	58 (27.1)	16 (7.5)
	20년 이상	101 2.89	1 (1.0)	22 (21.8)	48 (47.5)	25 (24.8)	5 (5.0)
경제활 동 여부	경제활동 하고있음	502 2.81	12 (2.4)	83 (16.5)	232 (46.2)	147 (29.3)	28 (5.6)
	하지않음	398 2.68	2 (.5)	49 (12.3)	194 (48.7)	124 (31.2)	29 (7.3)
직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215 2.85	8 (3.7)	34 (15.8)	104 (48.4)	55 (25.6)	14 (6.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71 2.77	2 (1.2)	23 (13.5)	84 (49.1)	58 (33.9)	4 (2.3)
	자영업자	80 2.90	1 (1.3)	19 (23.8)	34 (42.5)	23 (28.8)	3 (3.8)
	대학/대학원생	109 2.54	1 (.9)	18 (16.5)	37 (33.9)	36 (33.0)	17 (15.6)
	기타	325 2.71	2 (.6)	38 (11.7)	167 (51.4)	99 (30.5)	19 (5.8)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14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는 21.9%, ‘대구시의 범죄안전 정책이 잘 수행되어서’는 2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유(N=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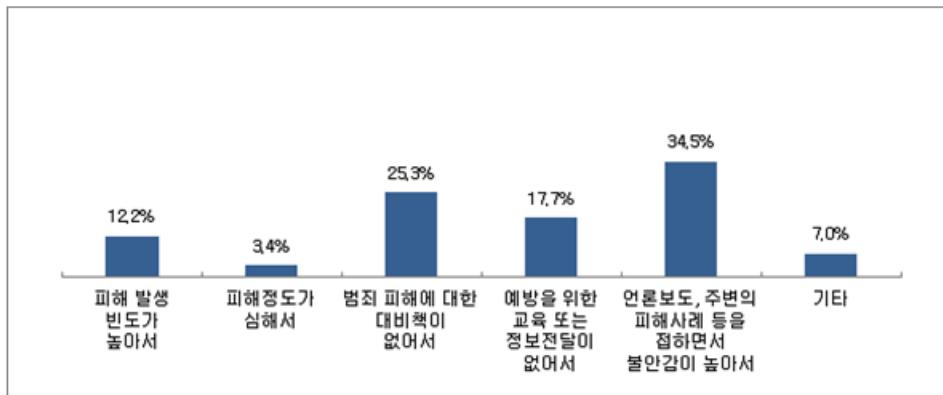
〈표 III-13〉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유

구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유						χ^2 (df)
	1	2	3	4	5	6	
전체	146	32	30	21	13	45	5
	100.0	21.9	20.5	14.4	8.9	30.8	3.4

1.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
2. 대구시의 범죄안전정책이 잘 수행되어서
3.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4. 경찰활동(신고 후 즉각적인 출동 등)이 잘 이루어져서
5.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6. 기타

*: p<.05, **: p<.01, ***: p<.001

한편,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328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는 25.3%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 17.7%, ‘피해발생 빈도가 높아서’는 1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N=328)

〈표 III-14〉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구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χ^2 (df)
	1	2	3	4	5	6	
전체	328	40	11	83	58	113	23
	100.0	12.2	3.4	25.3	17.7	34.5	7.0

1.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서
2. 피해정도가 심해서
3.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4.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
5.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
6. 기타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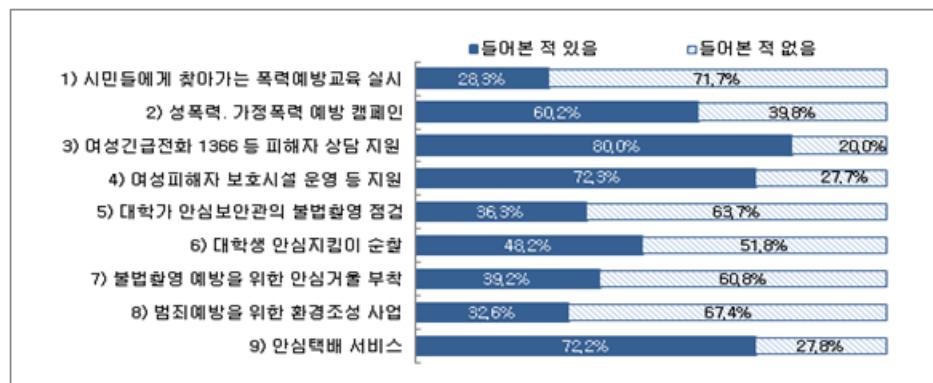
다. 대구시 안전정책 인식도

1) 여성안전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대구시에서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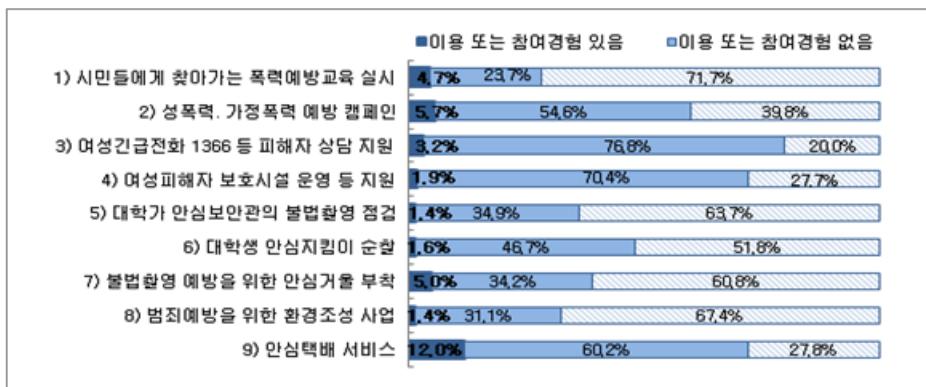
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0.0%,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에 대해서는 72.3%, 안심택배 서비스는 72.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은 60.2%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안심보안관의 불법촬영 예방점검 활동, 대학생의 자발적인 지역 순찰활동,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안심거울 부착,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여성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줄어든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에 대해서 여성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나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II-8] 여성안전사업 인지도

한편, 대구시 안전사업에 대한 이용 또는 참여경험을 살펴보면, 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 이용 또는 참여경험이 12.0%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부착사업은 각각 5.7%, 5.0% 순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림 III-9] 여성안전사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표 III-15〉 여성안전사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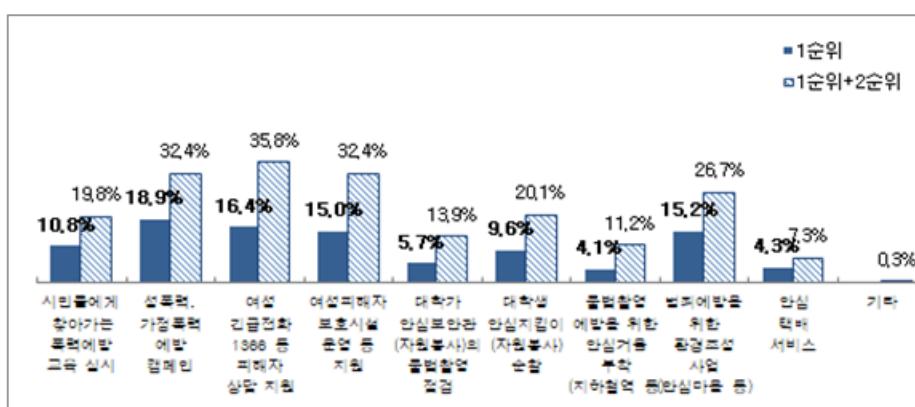
구분	빈 도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빈 도	%
		빈 도	%	빈 도	%		
1)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900	42	4.7	213	23.7	645	71.7
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900	51	5.7	491	54.6	358	39.8
3)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 지원	900	29	3.2	691	76.8	180	20
4)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900	17	1.9	634	70.4	249	27.7
5) 대학가 안심보안관(자원봉사)의 불법촬영 점검	900	13	1.4	314	34.9	573	63.7
6) 대학생 안심지킴이(자원봉사) 순찰	900	14	1.6	420	46.7	466	51.8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부착(지하철역 등)	900	45	5.0	308	34.2	547	60.8
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안심마을 등)	900	13	1.4	280	31.1	607	67.4
9) 안심택배 서비스	900	108	12.0	542	60.2	250	27.8

2)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사업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이 18.9%로 가장 높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지원(16.4%),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1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그리고 혼인상태별로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20대의 경우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이 18.5%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대학생 안심지킴이 활동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6.0%로 높았다. 반면 30대, 40대 50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40대의 경우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3.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상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의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17.9%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기혼별거 또는 기혼 사별의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지원이 각각 42.9%, 50.0%로 높았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0.5%,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나타났다.



[그림 III-10]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 사업

〈표 III-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 사업 인식차이

구분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 사업									χ^2 (df)
		1	2	3	4	5	6	7	8	9	
전체	900 (100.0)	97 (10.8)	170 (18.9)	148 (16.4)	135 (15.0)	51 (5.7)	86 (9.6)	37 (4.1)	137 (15.2)	39 (4.3)	-
연령 대	20대	200 (100.0)	9 (4.5)	25 (12.5)	29 (14.5)	31 (15.5)	20 (10.0)	32 (16.0)	15 (7.5)	37 (18.5)	2 (1.0)
	30대	200 (100.0)	18 (9.0)	40 (20.0)	44 (22.0)	39 (19.5)	8 (4.0)	14 (7.0)	9 (4.5)	28 (14.0)	0 (0)
	40대	200 (100.0)	17 (8.5)	45 (22.5)	30 (15.0)	29 (14.5)	7 (3.5)	16 (8.0)	5 (2.5)	46 (23.0)	5 (2.5)
	50대	200 (100.0)	33 (16.5)	42 (21.0)	28 (14.0)	26 (13.0)	9 (4.5)	13 (6.5)	6 (3.0)	22 (11.0)	21 (10.5)
	60대 이상	100 (100.0)	20 (20.0)	18 (18.0)	17 (17.0)	10 (10.0)	7 (7.0)	11 (11.0)	2 (2.0)	4 (4.0)	11 (11.0)
거주 상태	1인거주	88 (100.0)	7 (8.0)	13 (14.8)	12 (13.6)	18 (20.5)	12 (13.6)	13 (14.8)	3 (3.4)	9 (10.2)	1 (1.1)
	2인 이상(부모)	797 (100.0)	89 (11.2)	153 (19.2)	133 (16.7)	115 (14.4)	39 (4.9)	71 (8.9)	34 (4.3)	126 (15.8)	37 (4.6)
	2인이상(자녀)	15 (100.0)	1 (6.7)	4 (26.7)	3 (20.0)	2 (13.3)	0 (0)	2 (13.3)	0 (0)	2 (13.3)	1 (6.7)
혼인 상태	미혼	229 (100.0)	16 (7.0)	31 (13.5)	35 (15.3)	35 (15.3)	21 (9.2)	33 (14.4)	13 (5.7)	41 (17.9)	4 (1.7)
	기혼동거	610 (100.0)	78 (12.8)	121 (19.8)	98 (16.1)	91 (14.9)	25 (4.1)	49 (8.0)	22 (3.6)	93 (15.2)	33 (5.4)
	기혼 별거	14 (100.0)	1 (7.1)	2 (14.3)	6 (42.9)	2 (14.3)	2 (14.3)	0 (0)	0 (0)	1 (7.1)	0 (0)
	기혼 사별	10 (100.0)	0 (0)	1 (10.0)	5 (50.0)	0 (0)	3 (30.0)	1 (10.0)	0 (0)	0 (0)	0 (0)
	이혼	37 (100.0)	2 (5.4)	15 (40.5)	4 (10.8)	7 (18.9)	0 (0)	3 (8.1)	2 (5.4)	2 (5.4)	2 (5.4)

1.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3.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 지원
4.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5. 대학가 안심보안관(자원봉사)의 불법촬영 점검
6. 대학생 안심지킴이(자원봉사) 순찰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부착(지하철역 등)
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안심마을 등)

9. 안심택배 서비스

*: p<.05, **: p<.01, ***: p<.001

한편, 대구시 여성안전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 중요도를 비교하면 〈표 III-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17〉 여성안전 사업의 인지도, 참여도,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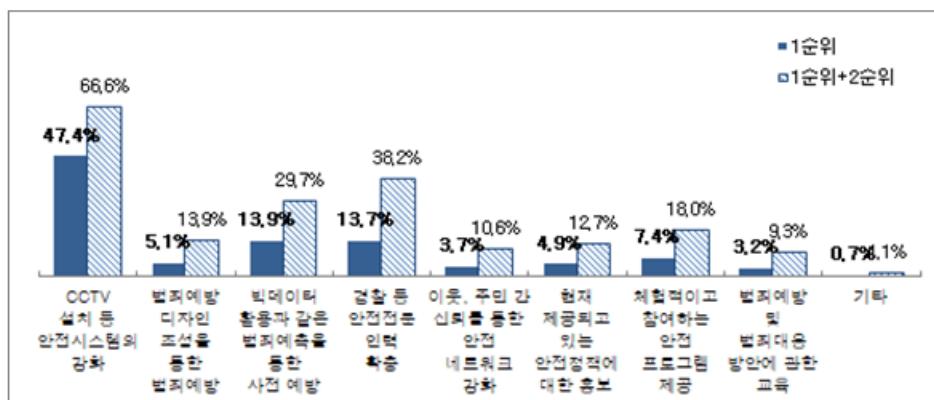
구분	빈 도	인지도		참여도		중요도	
		빈 도	%	빈 도	%	빈 도	%
1)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900	255	28.3	42	4.7	97	10.8
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900	542	60.2	51	5.7	170	18.9
3)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 지원	900	720	80.0	29	3.2	148	16.4
4)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900	651	72.3	17	1.9	135	15.0
5) 대학가 안심보안관(자원봉사)의 불법촬영 점검	900	327	36.3	13	1.4	51	5.7
6) 대학생 안심지킴이(자원봉사) 순찰	900	434	48.2	14	1.6	86	9.6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기울 부착(지하철역 등)	900	353	39.2	45	5.0	37	4.1
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안심마을 등)	900	293	32.6	13	1.4	137	15.2
9) 안심택배 서비스	900	650	72.2	108	12.0	39	4.3

여성안전 사업 중 인지도는 상담지원서비스와 보호시설, 그리고 안심택배 서비스, 폭력예방 캠페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참여도와 중요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중요도 측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과 폭력예방교육의 경우는 각각 15.2%, 10.8% 정도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들의 인지도를 보면 각각 32.6%, 28.3%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안전 사업의 경우 여성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에 있어서는 CCTV 설치 등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13.9%, 경찰 등 안전전문인력 확충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의 강화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20대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나 경찰력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혼인상태별로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이 35.7%, 경찰 등 안전전문 인력확충이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인식차이

구분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χ^2 (df)	
		1	2	3	4	5	6	7	8	9		
전체		900 (100.0)	427 (47.4)	46 (5.1)	125 (13.9)	123 (13.7)	33 (3.7)	44 (4.9)	67 (7.4)	29 (3.2)	6 (.7)	-
연령 대	20대	200 (100.0)	86 (43.0)	9 (4.5)	37 (18.5)	35 (17.5)	5 (2.5)	9 (4.5)	11 (5.5)	3 (1.5)	5 (2.5)	66.072** * (df 32)
	30대	200 (100.0)	100 (50.0)	5 (2.5)	26 (13.0)	31 (15.5)	3 (1.5)	11 (5.5)	19 (9.5)	4 (2.0)	1 (.5)	
	40대	200 (100.0)	99 (49.5)	14 (7.0)	22 (11.0)	27 (13.5)	7 (3.5)	6 (3.0)	22 (11.0)	3 (1.5)	0 (.0)	
	50대	200 (100.0)	89 (44.5)	13 (6.5)	30 (15.0)	23 (11.5)	12 (6.0)	12 (6.0)	10 (5.0)	11 (5.5)	0 (.0)	
	60대 이상	100 (100.0)	53 (53.0)	5 (5.0)	10 (10.0)	7 (7.0)	6 (6.0)	6 (6.0)	5 (5.0)	8 (8.0)	0 (.0)	
거주 상태	1인거주	88 (100.0)	40 (45.5)	7 (8.0)	11 (12.5)	16 (18.2)	3 (3.4)	4 (4.5)	4 (4.5)	2 (2.3)	1 (1.1)	10.321 (df 16)
	2인이상(부모)	797 (100.0)	379 (47.6)	38 (4.8)	112 (14.1)	107 (13.4)	29 (3.6)	38 (4.8)	62 (7.8)	27 (3.4)	5 (.6)	
	2인이상(자인)	15 (100.0)	8 (53.3)	1 (6.7)	2 (13.3)	0 (.0)	1 (6.7)	2 (13.3)	1 (6.7)	0 (.0)	0 (.0)	
혼인 상태	미혼	229 (100.0)	97 (42.4)	13 (5.7)	43 (18.8)	40 (17.5)	3 (1.3)	10 (4.4)	16 (7.0)	3 (1.3)	4 (1.7)	60.300** (df 32)
	기혼동거	610 (100.0)	302 (49.5)	28 (4.6)	73 (12.0)	75 (12.3)	27 (4.4)	30 (4.9)	48 (7.9)	25 (4.1)	2 (.3)	
	기혼 별거	14 (100.0)	2 (14.3)	1 (7.1)	5 (35.7)	3 (21.4)	1 (7.1)	2 (14.3)	0 (.0)	0 (.0)	0 (.0)	
	기혼 사별	10 (100.0)	2 (20.0)	2 (20.0)	1 (10.0)	1 (10.0)	2 (20.0)	0 (.0)	1 (10.0)	1 (10.0)	0 (.0)	
	이혼	37 (100.0)	24 (64.9)	2 (5.4)	3 (8.1)	4 (10.8)	0 (.0)	2 (5.4)	2 (5.4)	0 (.0)	0 (.0)	

1. CCTV 설치등 안전시스템의 강화
2.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3.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
4. 경찰 등 안전전문인력 확충
5. 이웃, 주민 간 신뢰를 통한 안전 네트워크 강화

6. 협재 제공되고 있는 안전정책에 대한 홍보
7.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안전프로그램 제공
8.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9. 기타

*: p<.05, **: p<.01, ***: p<.001

라. 여성폭력 피해경험 및 정보습득 정도

1) 여성폭력 직접피해 경험(일생동안)

일생동안 대구여성들은 바바리맨,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집착,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친구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지속적 괴롭힘, 성폭행, 가정폭력 등 8가지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적어도 1번 이상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8%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 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의 경우가 79.5%가 적어도 1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30대는 74.5%, 20대는 64.0%의 피해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일생동안 여성폭력 피해경험 차이

		일생동안 여성폭력 피해 경험			
구분		명	피해없음(%)	피해있음(%)	$\chi^2(df)$
합계		900	299(33.2)	601(66.8)	-
연 령 대	20대	200	72(36.0)	128(64.0)	47.602*** (df 4)
	30대	200	51(25.5)	149(74.5)	
	40대	200	41(20.5)	159(79.5)	
	50대	200	79(39.5)	121(60.5)	
	60대 이상	100	56(56.0)	44(44.0)	

*: p<.05, **: p<.01, ***: p<.001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에서 바바리맨과 맞닥뜨린 경험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 경험도 44.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행의 경험도 15.7%, 친구나 연인으로부터의 폭행경험은 15.0%로 상당하였다.

〈표 III-20〉 일생동안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유무

구 분	직접 피해 경험	
	없음	있음
1)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	900 474 (52.7)	426 (47.3)
2)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900 501 (55.7)	399 (44.3)
3)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	900 869 (96.6)	31 (3.4)
4)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	900 893 (99.2)	7 (0.8)
5)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	900 765 (85.0)	135 (15.0)
6)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침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	900 807 (89.7)	93 (10.3)
7)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	900 759 (84.3)	141 (15.7)
8)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	900 829 (92.1)	71 (7.9)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경험 후 신고한 경험은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32.4%가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피해의 경우가 16.1%로 신고율이 높았다. 반면 바바리맨의 경우에는 피해는 가장 많았으나 신고한 경우는 5.9%에 불과하여 거의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 여성폭력 신고 경험(일생동안)

구분	빈도	있음	
		신고하지 않음	신고하였음
		빈도(%)	빈도(%)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	426	401 (94.1)	25 (5.9)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399	388 (97.2)	11 (2.8)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	31	26 (83.9)	5 (16.1)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적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	7	6 (85.7)	1 (14.3)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	135	123 (91.1)	12 (8.9)
6)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에서 지속적인 美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	93	84 (90.3)	9 (9.7)
7)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	141	128 (90.6)	13 (9.2)
8)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	71	48 (67.6)	23 (32.4)

2) 여성폭력 직접피해 경험(2019년 이후)

대구 여성들이 2019년 이후, 여성폭력 피해 경험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없다고 전반적으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폭력 피해경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20대가 27.5%로 피해경험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40대 19.5%, 30대 18.5%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별거인 경우가 57.1%로 2019년 이후 한번이라도 여성폭력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의 경우도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25.3%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3년에서 10년 미만 거주한 집단에서 20.6%로 상대적으로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집단에서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2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피해경험 차이(2019년 이후)

		2019년 이후 여성폭력 피해 경험		
구분		명	피해없음 (%)	피해있음 (%)
			χ^2 (df)	
연령대	합계	900	746(82.9)	154(17.1)
연령대	20대	200	145(72.5)	55(27.5)
	30대	200	163(81.5)	37(18.5)
	40대	200	161(80.5)	39(19.5)
	50대	200	183(91.5)	17(8.5)
	60대 이상	100	94(94.0)	6(6.0)
혼인 상태	미혼	229	171(74.7)	58(25.3)
	기혼동거	610	529(86.7)	81(13.3)
	기혼별거	14	6(42.9)	8(57.1)
	기혼사별	10	10(100.0)	0(0)
	이혼	37	30(81.1)	7(18.9)
거주 기간	3년 미만	235	191(81.3)	44(18.7)
	3년~10년 미만	350	278(79.4)	72(20.6)
	10년~20년 미만	214	190(88.8)	24(11.2)
	20년 이상	101	87(86.1)	14(13.9)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180(83.7)	35(16.3)
	비정규 임금근로	171	144(84.2)	27(15.8)
	자영업자	80	72(90.0)	8(10.0)
	학생(대학/대학원)	109	80(73.4)	29(26.6)
	기타	325	270(83.1)	55(16.9)

*: p<.05, **: p<.01, ***: p<.001

여성폭력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이 8.6%이며,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멘과 맞닥뜨린 경험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은 3.3%로 나타났다.

〈표 III-23〉 여성폭력 직접피해 경험(2019년 이후)

구 분	직접 피해 경험 (2019년 이후)	
	없음	있음
1)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멘(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	900 851 (94.6)	49 (5.4)
2)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900 823 (91.4)	77 (8.6)
3)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	900 889 (98.8)	11 (1.2)
4)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	900 898 (99.8)	2 (0.2)
5)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	900 870 (96.7)	30 (3.3)
6)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	900 879 (97.7)	21 (2.3)
7)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	900 883 (98.1)	17 (1.9)
8)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	900 877 (97.4)	23 (2.6)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였음에도 신고한 경험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는데, 2019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율이 39.1%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 내외로 신고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피해의 경우에는 900명의 여성 중 77명이 그러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이 중에서 신고한 경우는 2.6%에 불과하여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4〉 여성폭력 직접피해 신고경험

구분	2019년 이후 직접피해 경험 있음				
	빈도	신고하지 않음		신고하였음	
		빈도	%	빈도	%
1)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거리에서 바마리팬(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	49	44	89.8	5	10.2
2)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77	75	97.4	2	2.6
3)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	11	11	100.0	-	-
4)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	2	2	100.0	-	-
5)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	30	26	86.7	4	13.3
6)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	21	18	85.7	3	14.3
7)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	17	16	94.1	1	5.9
8)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	23	14	60.9	9	39.1

3)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2019년 이후)

대구 여성들은 2019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간접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8%로 나타나 간접피해의 경험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 혼인상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경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64.5%로 간접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 별거의 경우 78.6%로 여성폭력 간접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에 간접경험이 있었던 비율이 67.9%로 상당하였다.

〈표 III-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차이(2019년 이후)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 피해경험		
구분		명	피해없음 (%)	피해있음 (%)
합계		900	479(53.2)	421(46.8)
연령대	20대	200	71(35.5)	129(64.5)
	30대	200	110(55.0)	90(45.0)
	40대	200	101(50.5)	99(49.5)
	50대	200	132(66.0)	68(34.0)
	60대 이상	100	65(65.0)	35(35.0)
혼인 상태	미혼	229	93(40.6)	136(59.4)
	기혼동거	610	361(59.2)	249(40.8)
	기혼별거	14	3(21.4)	11(78.6)
	기혼사별	10	7(70.0)	3(30.0)
	이혼	37	15(40.5)	22(59.5)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115(53.5)	100(46.5)
	비정규 임금근로	171	83(48.5)	88(51.5)
	자영업자	80	53(66.3)	27(33.8)
	학생(대학/대학원)	109	35(32.1)	74(67.9)
	기타	325	193(59.4)	132(40.6)

*: p<.05, **: p<.01, ***: p<.001

2019년 이후 유형별 여성피해의 경험이 지인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경험인 간접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III-25>와 같다. 우선 유형별로 간접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은 대중교통 이용 중의 불쾌한 신체접촉 피해에 대한 간접경험이 24.7%로 가장 높았고, 바바리맨 피해의 간접경험도 23.8%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대한 간접경험도 15.9%로 상담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6>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구 분	간접 피해 경험 (2019년 이후)	
	없음	있음
1)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686 (76.2)	214 (23.8)
2)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678 (75.3)	222 (24.7)
3)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900 (89.2)	97 (10.8)
4)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활영물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을 들은 경험	900 (94.4)	50 (5.6)
5)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900 (84.1)	143 (15.9)
6)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900 (86.9)	118 (13.1)
7)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인이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을 들은 경험	900 (0.1)	89 (9.9)
8)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을 보거나 들은 경험	900 (84.8)	137 (15.2)

한편 간접경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하였는 지의 비율을 보면 신고한

경우는 불법촬영 피해의 경우 24.7%로 신고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보거나 들은 경우 21.9%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15.3%가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7〉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신고 비율(2019년 이후)

구분	빈 도	간접 경험 있음			
		신고하지 않음		신고하였음	
		빈도	%	빈도	%
1)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214	200	93.5	14	6.5
2)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222	209	94.1	13	5.9
3)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97	73	75.3	24	24.7
4)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촬영물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을 들은 경험	50	43	86.0	7	14.0
5)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143	124	86.7	19	13.3
6)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죠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118	100	84.7	18	15.3
7)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인이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을 들은 경험	89	75	84.3	14	15.7
8) 대구의 지인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을 보거나 들은 경험	137	107	78.1	30	21.9

4)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성폭력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촬영 및 유포 17.1%,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폭력이 가장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50대의 경우 성폭력이 25.5%, 불법촬영 및 유포 20.5%, 가정폭력 16.5% 순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성폭력이 27.0%, 가정폭력 24.0%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의 경우 성폭력이 53.7%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촬영 및 유포의 경우 19.7%, 지속적 괴롭힘이 9.2%순으로 나타나 성폭력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4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폭력 21.6%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차이

구분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1순위)								χ^2 (df)
		1	2	3	4	5	6	7	8	
전체	900 (100.0)	10 (1.1)	70 (7.8)	154 (17.1)	55 (6.1)	110 (12.2)	396 (44.0)	100 (11.1)	5 (.6)	-
연령대	20대	200 (100.0)	0 (.0)	15 (7.5)	41 (20.5)	9 (4.5)	18 (9.0)	109 (54.5)	7 (3.5)	1 (.5)
	30대	200 (100.0)	3 (1.5)	16 (8.0)	30 (15.0)	6 (3.0)	28 (14.0)	111 (55.5)	6 (3.0)	0 (.0)
	40대	200 (100.0)	2 (1.0)	11 (5.5)	24 (12.0)	12 (6.0)	23 (11.5)	98 (49.0)	30 (15.0)	0 (.0)
	50대	200 (100.0)	5 (2.5)	23 (11.5)	41 (20.5)	22 (11.0)	25 (12.5)	51 (25.5)	33 (16.5)	0 (.0)
	60대 이상	100 (100.0)	0 (.0)	5 (5.0)	18 (18.0)	6 (6.0)	16 (16.0)	27 (27.0)	24 (24.0)	4 (4.0)
혼인상태	미혼	229 (100.0)	2 (.9)	18 (7.9)	45 (19.7)	10 (4.4)	21 (9.2)	123 (53.7)	9 (3.9)	1 (.4)
	기혼동거	610 (100.0)	8 (1.3)	49 (8.0)	101 (16.6)	41 (6.7)	80 (13.1)	255 (41.8)	72 (11.8)	4 (.7)
	기혼별거	14 (100.0)	0 (.0)	1 (7.1)	3 (21.4)	2 (14.3)	1 (7.1)	6 (42.9)	1 (7.1)	0 (.0)
	기혼사별	10 (100.0)	0 (.0)	1 (10.0)	0 (.0)	1 (10.0)	1 (10.0)	4 (40.0)	3 (30.0)	0 (.0)
	이혼	37 (100.0)	0 (.0)	1 (2.7)	5 (13.5)	1 (2.7)	7 (18.9)	8 (21.6)	15 (40.5)	0 (.0)
거주상태	1인 거주	88 (100.0)	1 (1.1)	9 (10.2)	13 (14.8)	6 (6.8)	7 (8.0)	40 (45.5)	12 (13.6)	0 (.0)
	2인이상 (가족 등)	797 (100.0)	8 (10)	60 (7.5)	137 (17.2)	49 (6.1)	102 (12.8)	350 (43.9)	86 (10.8)	5 (.6)
	2인이상 (친구 등)	15 (100.0)	1 (6.7)	1 (6.7)	4 (26.7)	0 (.0)	1 (6.7)	6 (40.0)	2 (13.3)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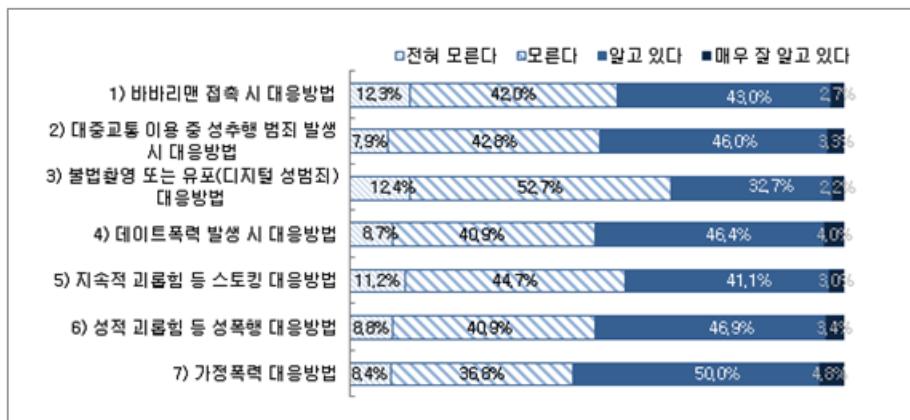
1. 바비리맨, 2. 성추행, 3. 불법촬영 및 유포, 4. 데이트폭력, 5.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6. 성폭력, 7. 가정폭력, 8. 기타

*: p<.05, **: p<.01, ***: p<.001

5)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방법 인지

여성들이 여성폭력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12.4%, 모르는 경우가 52.7%로 나타나 65.1%가 모르고 있었으며,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의 경우에는 11.2%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44.7%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약 55.9%가 모르고 있었다. 최근 신종 젠더폭력이라고 명명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2]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방법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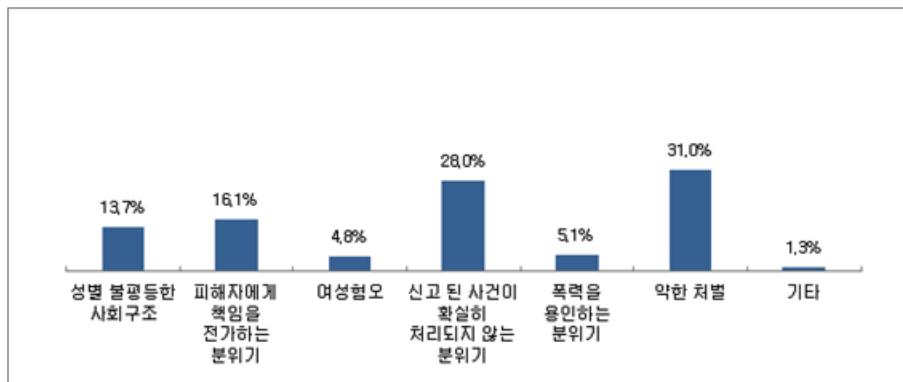
〈표 III-29〉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방법 인지

구분	빈 도	무		유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매우잘 알고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바바리멘 접촉 시 대응방법	900	111 (12.3)	378 (42.0)	387 (43.0)	24 (2.7)
2) 대중교통 이용 중 성추행 범죄 발생 시 대응방법	900	71 (7.9)	385 (42.8)	414 (46.0)	30 (3.3)
3) 불법촬영 또는 유포(디지털 성범죄) 대응방법	900	112 (12.4)	474 (52.7)	294 (32.7)	20 (2.2)
4) 데이트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	900	78 (8.7)	368 (40.9)	418 (46.4)	36 (4.0)
5)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대응방법	900	101 (11.2)	402 (44.7)	370 (41.1)	27 (3.0)
6) 성적 괴롭힘 등 성폭행 대응방법	900	79 (8.8)	368 (40.9)	422 (46.9)	31 (3.4)
7) 가정폭력 대응방법	900	76 (8.4)	331 (36.8)	450 (50.0)	43 (4.8)

마. 대구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1) 여성폭력의 지속적 발생 원인

여성폭력에 대응하여 여성안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그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약한 치벌’이 31.0%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고 된 사건이 확실히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 28.0%,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가 1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3] 여성폭력의 지속적 발생 원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폭력의 지속적 발생원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 혼인상태,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신고된 사건이 확실하게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 37.0%로 나타났고, 약한 치벌을 30.5% 순으로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본 반면 50대의 경우는 약한 치벌이 37.5%로 더 큰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구여성들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벌을 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지속발생 원인 차이

구분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χ^2 (df)
		1	2	3	4	5	6	7	
전체	900 (100.0)	123 (13.7)	145 (16.1)	43 (4.8)	252 (28.0)	46 (5.1)	279 (31.0)	12 (1.3)	-
연령대	20대	200 (100.0)	16 (8.0)	27 (13.5)	19 (9.5)	74 (37.0)	2 (1.0)	61 (30.5)	1 (0.5)
	30대	200 (100.0)	22 (11.0)	49 (24.5)	11 (5.5)	56 (28.0)	6 (3.0)	55 (27.5)	1 (0.5)
	40대	200 (100.0)	32 (16.0)	40 (20.0)	5 (2.5)	53 (26.5)	15 (7.5)	54 (27.0)	1 (0.5)
	50대	200 (100.0)	33 (16.5)	21 (10.5)	5 (2.5)	46 (23.0)	15 (7.5)	75 (37.5)	5 (2.5)
	60대 이상	100 (100.0)	20 (20.0)	8 (8.0)	3 (3.0)	23 (23.0)	8 (8.0)	34 (34.0)	4 (4.0)
혼인상태	미혼	229 (100.0)	23 (10.0)	37 (16.2)	21 (9.2)	76 (33.2)	5 (2.2)	66 (28.8)	1 (0.4)
	기혼동거	610 (100.0)	90 (14.8)	97 (15.9)	21 (3.4)	164 (26.9)	36 (5.9)	192 (31.5)	10 (1.6)
	기혼별거	14 (100.0)	2 (14.3)	4 (28.6)	0 (0.0)	3 (21.4)	2 (14.3)	3 (21.4)	0 (0.0)
	기혼사별	10 (100.0)	0 (0.0)	2 (20.0)	0 (0.0)	3 (30.0)	0 (0.0)	4 (40.0)	1 (10.0)
	이혼	37 (100.0)	8 (21.6)	5 (13.5)	1 (2.7)	6 (16.2)	3 (8.1)	14 (37.8)	0 (0.0)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100.0)	35 (16.3)	43 (20.0)	12 (5.6)	55 (25.6)	8 (3.7)	62 (28.8)	0 (0.0)
	비정규 임금근로	171 (100.0)	20 (11.7)	29 (17.0)	3 (1.8)	61 (35.7)	10 (5.8)	45 (26.3)	3 (1.8)
	자영업자	80 (100.0)	15 (18.8)	10 (12.5)	1 (1.2)	16 (20.0)	7 (8.8)	27 (33.8)	4 (5.0)
	학생(대학/ 대학원)	109 (100.0)	9 (8.3)	12 (11.0)	12 (11.0)	40 (36.7)	1 (0.9)	34 (31.2)	1 (0.9)
	기타	325 (100.0)	44 (13.5)	51 (15.7)	15 (4.6)	80 (24.6)	20 (6.2)	111 (34.2)	4 (1.2)

1.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
2.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3. 여성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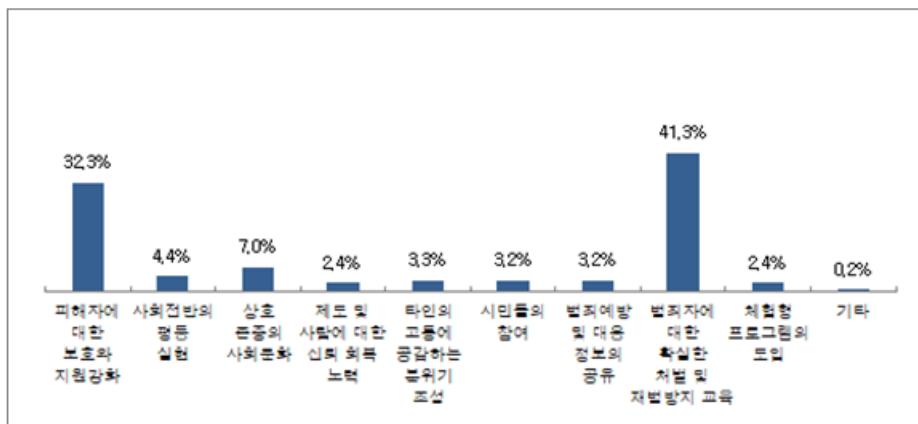
4. 신고 된 사건이 확실히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
5.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
6. 약한 처벌
7. 기타

*: p<.05, **: p<.01, ***: p<.001

2)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 요구

대구여성들이 생각하는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재범방지 교육’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가 32.3%, ‘상호존중의 사회문화’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들은 여성 안전정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반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이들을 중심으로 처벌과 피해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구여성들의 참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기본으로 전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면 상호 존중의 사회문화와 사회전반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림 III-14] 여성안전정책 지향가치

그리고 이러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대구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령, 거주형태, 현주소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범죄자에 대한 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호존중의 사회문화’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13.0%, 1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안전정책 지향 가치 차이

구분	여성 안전정책 지향 가치 우선 항목										χ^2 (df)
	1	2	3	4	5	6	7	8	9	10	
전체	900 (100.0)	291 (32.3)	40 (4.4)	63 (7.0)	22 (2.4)	30 (3.3)	29 (3.2)	29 (3.2)	372 (41.3)	22 (2.4)	2 (0.2)
20대	200 (100.0)	64 (32.0)	7 (3.5)	10 (5.0)	3 (1.5)	6 (3.0)	6 (3.0)	5 (2.5)	90 (45.0)	8 (40)	1 (0.5)
30대	200 (100.0)	80 (40.0)	7 (3.5)	7 (3.5)	5 (2.5)	7 (3.5)	2 (1.0)	6 (3.0)	83 (41.5)	2 (10)	1 (0.5)
40대	200 (100.0)	77 (38.5)	11 (5.5)	8 (4.0)	3 (1.5)	3 (3.0)	6 (4.0)	6 (3.0)	76 (38.0)	5 (25)	0 (0.0)
50대	200 (100.0)	51 (25.5)	9 (4.5)	26 (13.0)	8 (4.0)	6 (3.0)	7 (3.0)	9 (3.5)	81 (45.5)	3 (15)	0 (0.0)
60대 이상	100 (100.0)	19 (19.0)	6 (6.0)	12 (12.0)	3 (3.0)	5 (5.0)	6 (6.0)	3 (3.0)	42 (42.0)	4 (40)	0 (0.0)
원룸 등 다세대	160 (100.0)	60 (37.5)	4 (2.5)	8 (5.0)	5 (3.1)	3 (3.8)	6 (1.9)	3 (2.5)	63 (39.4)	6 (38)	1 (0.6)
단독주택	105 (100.0)	28 (26.7)	4 (3.8)	14 (13.3)	4 (3.8)	3 (3.8)	2 (2.9)	4 (1.9)	38 (36.2)	7 (67)	1 (1.0)
기주형태	아파트, 오피스텔 (100.0)	623 (32.4)	202 (4.8)	30 (6.3)	39 (2.1)	13 (3.4)	21 (3.9)	21 (3.4)	264 (42.4)	9 (14)	0 (0.0)
상가 및 기타	12 (100.0)	1 (8.3)	2 (16.7)	0 (0.0)	0 (0.0)	0 (0.0)	0 (0.0)	7 (53.3)	0 (0.0)	0 (0.0)	43.444* (df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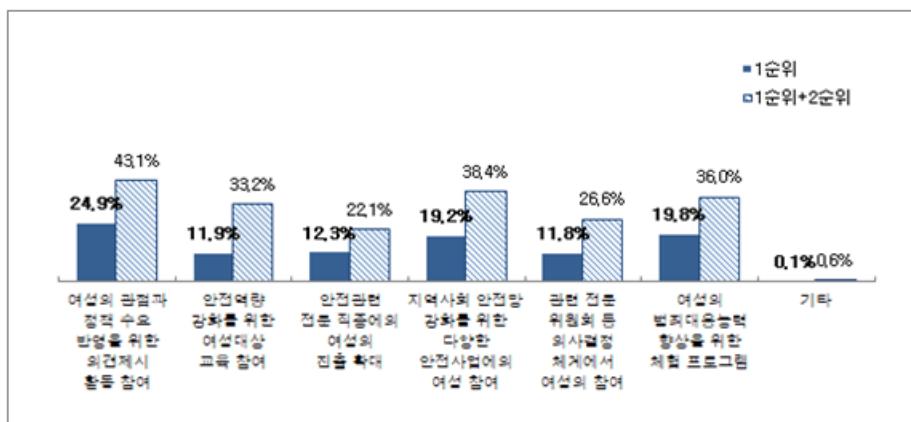
현 주소지 기주기간	3년 미만	235 (100.0)	79 (33.6)	6 (2.6)	14 (6.0)	7 (3.0)	8 (3.4)	9 (3.8)	7 (3.0)	99 (42.1)	6 (2.6)	0 (0.0)	40.567* (df 27)
	3년-10년 미만	350 (100.0)	124 (35.4)	16 (4.6)	19 (5.4)	9 (2.6)	14 (4.0)	8 (2.3)	13 (3.7)	139 (39.7)	6 (1.7)	2 (0.6)	
10년-20년 미만	214 (100.0)	62 (29.0)	12 (5.6)	12 (5.6)	6 (2.8)	3 (1.4)	8 (3.7)	7 (3.3)	97 (45.3)	7 (3.3)	0 (0.0)		
20년 이상	101 (100.0)	26 (25.7)	6 (5.9)	18 (17.8)	0 (0.0)	5 (5.0)	4 (4.0)	2 (2.0)	37 (36.6)	3 (3.0)	0 (0.0)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2. 사회 전반의 평등 실현****3. 상호 존중의 사회문화****4. 제도 및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5.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6. 시민들의 참여****7. 범죄 예방 및 대응 정보의 공유(범죄발생, 예방·정보 등)****8.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재범방지 교육****9. 범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의 도입(호신술 교육 등)****10. 기타**

*: p<.05, **: p<.01, ***: p<.001

3) 여성안전의 확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 강화방법

대구여성의 안전이 잘 확보되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안전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에 참여’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범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사업에의 여성 참여’가 19.2%로 나타났다. 즉 대구여성들은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고, 범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5]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참여의 강화 분야

그리고 이러한 여성참여의 강화분야에 대해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대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여성의 범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각각 26.0%, 24.0%, 2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의 참여강화 항목 인식 차이

구분		여성의 참여 강화 항목(1순위)							χ^2 (df)
		1	2	3	4	5	6	7	
전체	900 (100.0)	224 (24.9)	107 (11.9)	111 (12.3)	173 (19.2)	106 (11.8)	178 (19.8)	1 (0.1)	-
연령대	20대	200 (100.0)	52 (26.0)	11 (5.5)	29 (14.5)	31 (15.5)	25 (12.5)	52 (26.0)	0 (0.0)
	30대	200 (100.0)	42 (21.0)	21 (10.5)	24 (12.0)	43 (21.5)	22 (11.0)	48 (24.0)	0 (0.0)
	40대	200 (100.0)	46 (23.0)	25 (12.5)	17 (8.5)	44 (22.0)	20 (10.0)	48 (24.0)	0 (0.0)
	50대	200 (100.0)	63 (31.5)	34 (17.0)	25 (12.5)	39 (19.5)	23 (11.5)	16 (8.0)	0 (0.0)
	60대 이상	100 (100.0)	21 (21.0)	16 (16.0)	16 (16.0)	16 (16.0)	14 (16.0)	1 (1.0)	59.871* ** (df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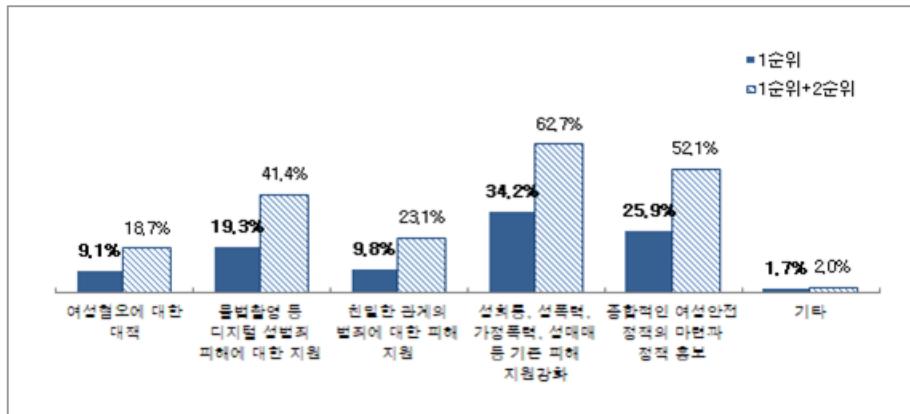
1.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 활동 참여
2.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대상 교육 참여
3. 안전관련 전문 직종에의 여성의 진출 확대
4.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사업에의 여성 참여
5. 관련 전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체계에서 여성의 참여
6. 여성의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7. 기타

*: p<.05, **: p<.01, ***: p<.001

4)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 강화’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정책 홍보’는 25.9%,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19.3%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여성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이 제공되고 이러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III-16]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에 대한 지원강화가 31.0%로 높았지만, 이어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26.5%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근절위해 필요한 정책 차이

구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관심이 필요한 정책(1순위)						χ^2 (df)
		1	2	3	4	5	6	
전체	900 (100.0)	82 (9.1)	174 (19.3)	88 (9.8)	308 (34.2)	233 (25.9)	15 (1.7)	-
연령대	20대	200 (100.0)	24 (12.0)	53 (26.5)	9 (4.5)	62 (31.0)	47 (23.5)	5 (2.5)
	30대	200 (100.0)	16 (8.0)	33 (16.5)	10 (5.0)	78 (39.0)	59 (29.5)	4 (2.0)
	40대	200 (100.0)	12 (6.0)	36 (18.0)	19 (9.5)	74 (37.0)	56 (28.0)	3 (1.5)
	50대	200 (100.0)	17 (8.5)	36 (18.0)	31 (15.5)	65 (32.5)	50 (25.0)	1 (0.5)
	60대	100 (100.0)	13 (13.0)	16 (16.0)	19 (19.0)	29 (29.0)	21 (21.0)	2 (2.0)
혼인상태	미혼	229 (100.0)	27 (11.8)	65 (28.4)	11 (4.8)	66 (28.8)	54 (23.6)	6 (2.6)
	기혼	610 (100.0)	49 (8.0)	98 (16.1)	67 (11.0)	224 (36.7)	163 (26.7)	9 (1.5)
	동거	14 (100.0)	2 (14.3)	4 (28.6)	2 (14.3)	3 (21.4)	3 (21.4)	0 (0.0)
	기혼 별거	10 (100.0)	0 (0.0)	2 (20.0)	2 (20.0)	2 (20.0)	4 (40.0)	0 (0.0)
	이혼	37 (100.0)	4 (10.8)	5 (13.5)	6 (16.2)	13 (35.1)	9 (24.3)	0 (0.0)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502 (100.0)	47 (9.4)	99 (19.7)	61 (12.2)	156 (31.1)	127 (25.3)	12 (2.4)
	하지 않음	398 (100.0)	35 (8.8)	75 (18.8)	27 (6.8)	152 (38.2)	106 (26.6)	3 (0.8)

1. 여성혐오에 대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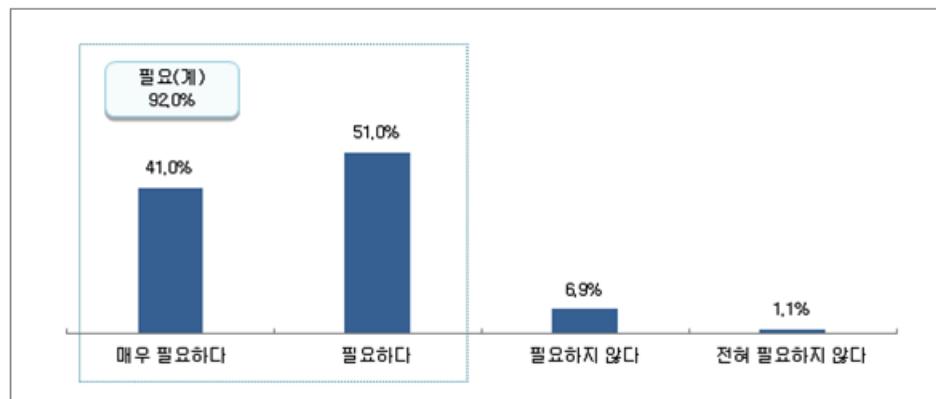
2.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3. 친밀한 관계의 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4.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강화
5.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정책 홍보
6. 기타

*: p<.05, **: p<.01, ***: p<.001

바.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요구

1)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41.0%, 필요하다는 의견이 51.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 필요성 인식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40대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51.0%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5.5%로 나타나 96.5%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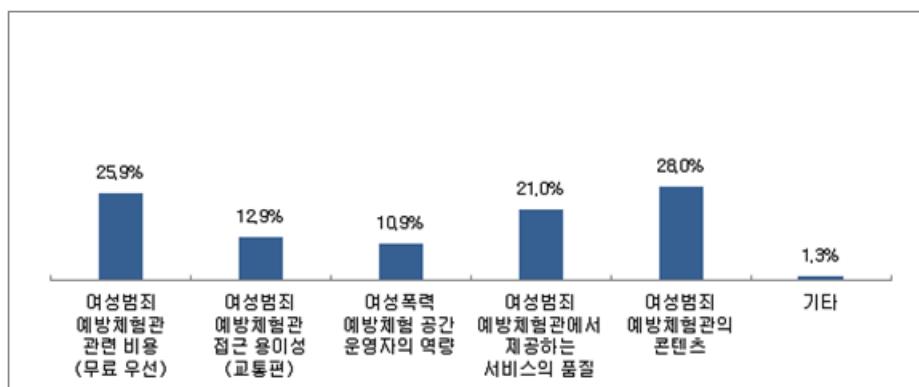
〈표 III-3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 인식 차이

구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 조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900 (100.0)	369 (41.0)	459 (51.0)	62 (6.9)	10 (1.1)	-
연령대	20대	200 (100.0)	72 (36.0)	108 (54.0)	18 (9.0)	2 (1.0)
	30대	200 (100.0)	86 (43.0)	96 (48.0)	15 (7.5)	3 (1.5)
	40대	200 (100.0)	102 (51.0)	91 (45.5)	6 (3.0)	1 (0.5)
	50대	200 (100.0)	76 (38.0)	107 (53.5)	16 (8.0)	1 (0.5)
	60대 이상	100 (100.0)	33 (33.0)	57 (57.0)	7 (7.0)	3 (3.0)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100.0)	83 (38.6)	105 (48.8)	21 (9.8)	6 (2.8)
	비정규 임금근로	171 (100.0)	77 (45.0)	91 (53.2)	3 (1.8)	0 (0.0)
	자영업자	80 (100.0)	27 (33.8)	43 (53.8)	9 (11.2)	1 (1.2)
	학생(대학/ 대학원)	109 (100.0)	40 (36.7)	57 (52.3)	12 (11.0)	0 (0.0)
	기타	325 (100.0)	142 (43.7)	163 (50.2)	17 (5.2)	3 (0.9)

*: p<.05, **: p<.01, ***: p<.001

2)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범죄 예방체험관의 콘텐츠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28.0%로 나타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여성범죄 예방체험관 관련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5.9%, 여성범죄 예방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을 구성할 때, 여성들의 의견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8]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여성폭력 예방체험공간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30대와 40대는 여성범죄 예방체험관 관련 비용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예방체험공관의 콘텐츠라고 응답하여 콘텐츠의 구성이 중요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무료로 예방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고려사항 인식 차이

구분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 주요 고려사항						χ^2 (df)
		1	2	3	4	5	6	
전체	900 (100.0)	233 (25.9)	116 (12.9)	98 (10.9)	189 (21.0)	252 (28.0)	12 (1.3)	-
연령대	20대	200 (100.0)	54 (27.0)	15 (7.5)	22 (11.0)	48 (24.0)	56 (28.0)	5 (2.5)
	30대	200 (100.0)	57 (28.5)	27 (13.5)	17 (8.5)	51 (25.5)	47 (23.5)	1 (0.5)
	40대	200 (100.0)	63 (31.5)	17 (8.5)	13 (6.5)	45 (22.5)	62 (31.0)	0 (0.0)
	50대	200 (100.0)	41 (20.5)	29 (14.5)	30 (15.0)	34 (17.0)	61 (30.5)	5 (2.5)
	60대 이상	100 (100.0)	18 (18.0)	28 (28.0)	16 (16.0)	11 (11.0)	26 (26.0)	1 (1.0)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6 (100.0)	11 (30.6)	4 (11.1)	2 (5.6)	2 (5.6)	17 (47.2)	0 (0.0)
	101-200만원	67 (100.0)	18 (26.9)	13 (19.4)	4 (6.0)	12 (17.9)	18 (26.9)	2 (3.0)
	201-300만원	152 (100.0)	50 (32.9)	19 (12.5)	12 (7.9)	34 (22.4)	36 (23.7)	1 (0.7)
	301-400만원	198 (100.0)	58 (29.3)	21 (10.6)	15 (7.6)	54 (27.3)	49 (24.7)	1 (0.5)
	401-500만원	160 (100.0)	33 (20.6)	22 (13.8)	21 (13.1)	31 (19.4)	51 (31.9)	2 (1.2)
	501-600만원	129 (100.0)	34 (26.4)	14 (10.9)	26 (20.2)	22 (17.1)	33 (25.6)	0 (0.0)
	601만원 이상	158 (100.0)	29 (18.4)	23 (14.6)	18 (11.4)	34 (21.5)	48 (30.4)	6 (3.8)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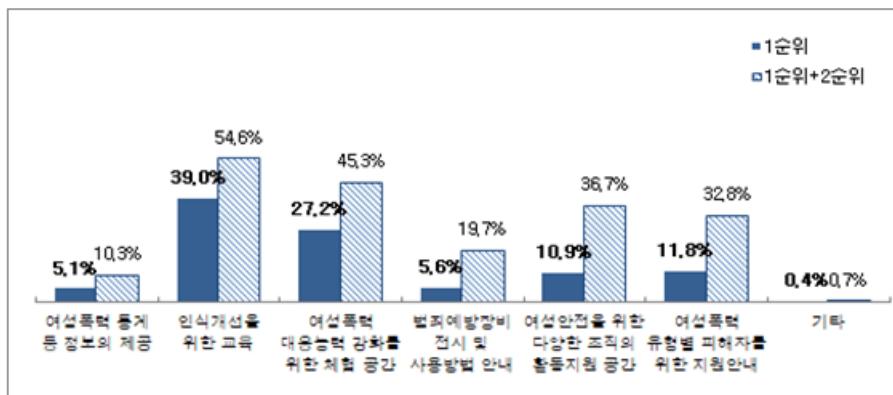
구분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 주요 고려사항						χ^2 (df)
		1	2	3	4	5	6	
전체	900 (100.0)	233 (25.9)	116 (12.9)	98 (10.9)	109 (21.0)	252 (28.0)	12 (1.3)	-
직업	정규 임금근로 (100.0)	215 (22.8)	49 (14.0)	30 (14.0)	49 (22.8)	56 (26.0)	1 (0.5)	35.899* (df 20)
	비정규 임금근로 (100.0)	171 (32.2)	55 (8.8)	15 (7.6)	36 (21.1)	51 (29.8)	1 (0.6)	
	자영업자 (100.0)	80 (13.8)	11 (20.0)	16 (17.5)	14 (13.8)	11 (31.2)	3 (3.8)	
	학생(대학/ 대학원) (100.0)	109 (27.5)	30 (6.4)	7 (11.9)	13 (22.9)	25 (29.4)	2 (1.8)	
	기타 (100.0)	325 (27.1)	88 (14.8)	48 (8.6)	28 (20.9)	68 (27.1)	5 (1.5)	

1. 여성범죄예방체험관 관련 비용(무료 우선)
2. 여성범죄예방체험관 접근 용이성(교통편)
3.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운영자의 역량
4. 여성범죄예방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5. 여성범죄 예방체험관의 콘텐츠(이용가능한 정보, 시설 또는 교육 등)
6. 기타

*: p<.05, **: p<.01, ***: p<.001

3)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조성 시 주요 제공 서비스

여성폭력 예방 체험 공간 조성 시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는 대구여성들은 무엇보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39.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뒤로 ‘여성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공간’을 27.2%,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 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여성들은 무엇보다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여성폭력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대처 방법, 피해자 지원 안내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9]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주요 제공 서비스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조성 시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여성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공간이라는 의견이 각각 33.5%, 36.0%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조성 시 서비스 인식 차이

구분		여성폭력 예방 공간 조성 시 주요 제공 서비스(1순위)							χ^2 (df)
		1	2	3	4	5	6	7	
전체	900 (100.0)	46 (5.1)	351 (39.0)	245 (27.2)	50 (5.6)	98 (10.9)	106 (11.8)	4 (0.4)	-
연령 대	20대	200 (100.0)	9 (4.5)	56 (28.0)	67 (33.5)	14 (7.0)	14 (7.0)	38 (19.0)	2 (1.0)
	30대	200 (100.0)	10 (5.0)	62 (31.0)	72 (36.0)	13 (6.5)	22 (11.0)	21 (10.5)	0 (0.0)
	40대	200 (100.0)	5 (2.5)	89 (44.5)	46 (23.0)	10 (5.0)	30 (15.0)	20 (10.0)	0 (0.0)
	50대	200 (100.0)	14 (7.0)	101 (50.5)	36 (18.0)	11 (5.5)	19 (9.5)	17 (8.5)	2 (1.0)
	60대 이상	100 (100.0)	8 (8.0)	43 (43.0)	24 (24.0)	2 (2.0)	13 (13.0)	10 (10.0)	0 (0.0)
직업	정규 임금근로	215 (100.0)	11 (5.1)	80 (37.2)	67 (31.2)	16 (7.4)	16 (7.4)	25 (11.6)	0 (0.0)
	비정규 임금근로	171 (100.0)	8 (4.7)	80 (46.8)	39 (22.8)	7 (4.1)	23 (13.5)	13 (7.6)	1 (0.6)
	자영업자	80 (100.0)	3 (3.8)	41 (51.2)	14 (17.5)	3 (3.8)	6 (7.5)	11 (13.8)	2 (2.5)
	학생(대학/ 대학원)	109 (100.0)	8 (7.3)	28 (25.7)	32 (29.4)	7 (6.4)	9 (8.3)	25 (22.9)	0 (0.0)
	기타	325 (100.0)	16 (4.9)	122 (37.5)	93 (28.6)	17 (5.2)	44 (13.5)	32 (9.8)	1 (0.3)

1. 여성폭력 통계 등 정보의 제공
2. 여성폭력의 심각성, 범죄예방의 중요성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3. 호신술 교육 등 여성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공간
4. 범죄예방장비 전시 및 사용방법 안내
5.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의 활동지원 공간
6.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자를 위한 지원안내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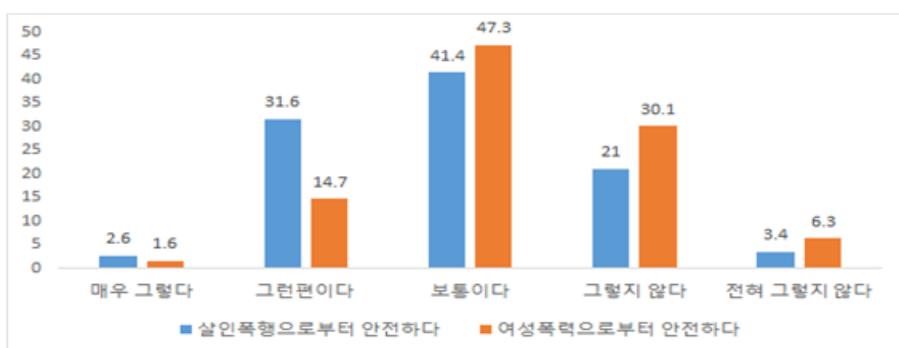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사. 시사점

대구여성을 대상으로 대구의 여성안전 현황과 안전정책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평가한 비율 16.3%에 불과하며, 안전하지 못한 이유로 여성폭력 간접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여성폭력 대응이나 예방정보의 부족이라고 인식

대구여성을 대상으로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림 III-10) 과 같이 대구여성들은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4.2%였으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그림 III-11))는 응답은 16.3%에 불과하여 특히 여성폭력에 대해서 대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나타나 살인, 폭행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24.4%에 비해 12.0%p 높았다. 따라서 여성안전 정책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0] 폭력 안전성 비교

한편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32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34.5%),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거나(25.3%),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17.7%)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즉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언론을 통한 간접경험, 그리고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폭력과 관련한 개념이나 유형, 형사사법 처리절차나 피해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구여성들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전 사업 중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안심택배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 낮음, 여성안전을 위해 CCTV설치 등 안전시스템이나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전문 인력과 체험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제공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대구시에서는 여성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안전 사업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III-8)과 같이 대구 여성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보호시설 운영등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았고,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심택배 서비스도 72.2%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구 시민들을 찾아가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28.3%만이 인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 지하철 등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거나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을 소개하는 공간을 통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20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때 신청할 수 있기에 교육을 원하는 개인일 경우, 그리고 그 개인이 단체나 그룹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육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공개강좌를 오픈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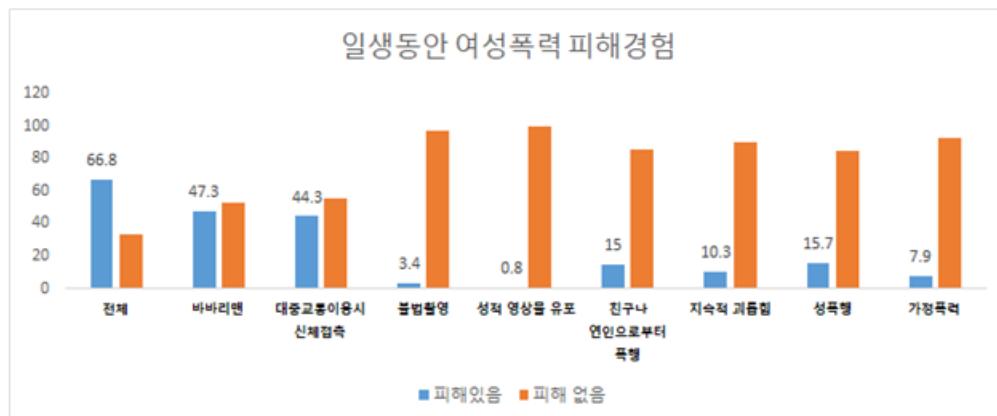
한편, 여성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전문 인력확충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구 여성들은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골목길, 사각지대, 공중화장실 인근 등을 중심으로 CCTV와 비상벨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범죄자들이 범행에 발각에 대한 두려움 높임으로써 사전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요소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람이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현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여성안전정책으로 CCTV의 확대와 안전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외곽지역,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공중 화장실 등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소통 시스템도 고려할 만 하다.

한편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으로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의 제공도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들은 범죄발생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지만 마땅히 이에 대응해야 할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안전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내용과 프로그램 구성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책이든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범죄유형이 무엇인지를 확

인하고, 어떤 정보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인가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생동안 한 번이라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66.8%, 유형별로 바바리맨 맞닥뜨린 피해 47.3%,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44.3%로 높아

일생동안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바바리맨 접촉,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 친구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지속적 괴롭힘, 성폭력 또는 성적 괴롭힘, 가정폭력 등 한번이라도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6.8%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바바리맨 접촉 피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접촉 피해가 약 과반수 이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범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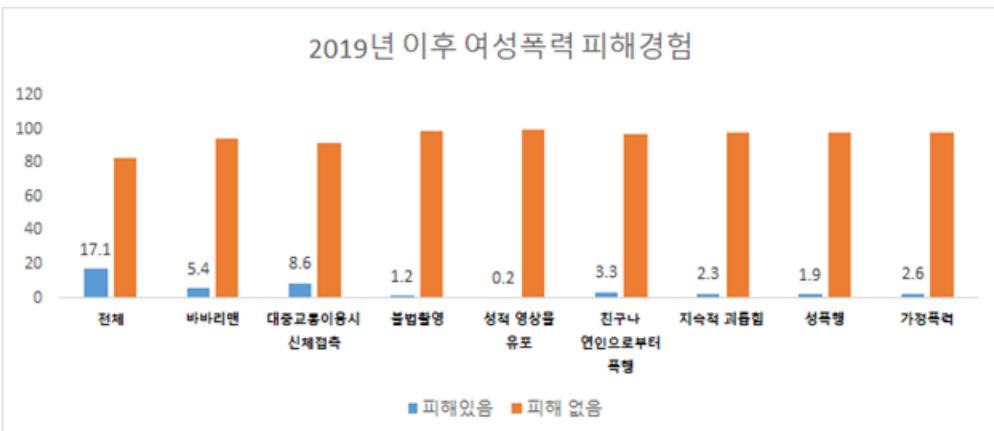
[그림 III-21] 일생동안 여성폭력 피해 경험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피해경험이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거리에서 피해라던가 혹은 대중교통 이용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이며 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리에서의 범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경험의 경우 주변의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이러한 폭력예방 캠페인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보다 명확히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 할 수 있는지를 게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19년 이후 여성폭력 피해경험 17.1%,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 8.6%로 높으나 피해자 중 신고는 2.6%에 불과

2019년 이후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17.1%의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이 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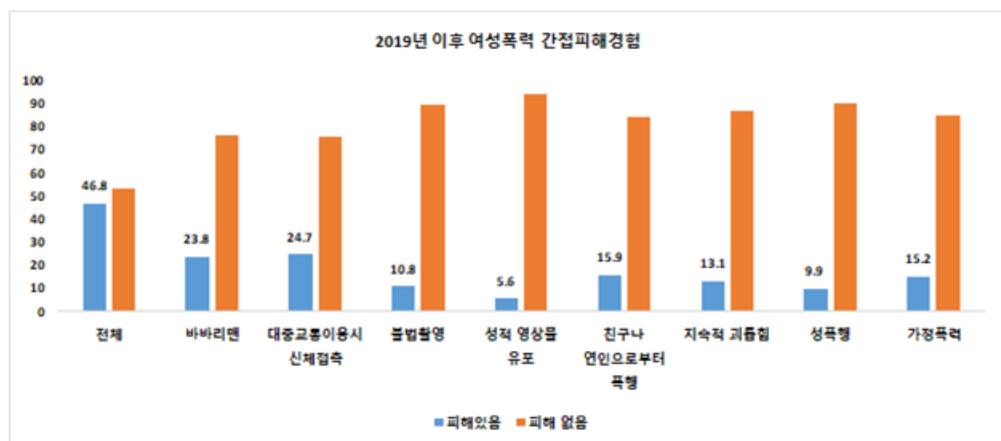
[그림 III-22] 여성폭력 피해경험(2019 이후)

그리고 이러한 피해 뒤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2.6%만이 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성폭력의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할 수 없기에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조차 되지 않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가해자는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피해 현실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범죄예방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피해경험 46.8%,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24.7%, 바바리맨 23.8%,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 15.9%, 가정폭력 15.2%, 지속적 괴롭힘 15.2% 순으로 나타남.

2019년 이후 여성폭력 간접피해경험은 46.8%로 나타나 지인으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간접경험이 24.7%가 가장 많았고, 바바리맨 피해의 간접경험이 2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의 폭행피해에 대한 간접경험이 1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2019 이후)

이러한 간접경험에 대해서 신고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신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불법촬영으로 간접경험이 있는 사람의 24.7%가 신고하였고, 가정폭력의

간접경험에 있어서는 21.9%가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여성폭력 간접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비교적 높았다.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은 성폭력 44.0%, 불법촬영 및 유포 17.1%, 지속적 괴롭힘 12.2%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유형 별 정보습득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법촬영 및 유포 65.1%,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55.9%의 비율 높아

대구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의 경우는 전통적인 형태의 성적 괴롭힘 등 성폭력이 44.0%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17.1%,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12.2% 순으로 나타나 그 두려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모두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은 많으나 이러한 유형의 여성폭력 보다는 성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등 전통적인 성폭력과 더불어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폭력의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법촬영 또는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가 65.1%로 가장 높았고, 스토킹의 경우는 55.9%로 나타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여성폭력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구여성들은 대구의 여성안전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1.3%,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 32.3%로 높음. 여성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성들이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를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 활동에 참여 24.9%, 여성들이 여성의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19.8%, 다양한 안전사업에의 여성참여가 19.2%로 나타남

대구여성들은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이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높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2.3%로 높아 가해자에 대해서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여성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확실하게 겸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강화해야 할 여성참여의 분야로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대응 능력 향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안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여성안전 관련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주는 것, 여성안전 사업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홍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임

대구여성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34.2%가 인지하였으며,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는 것 25.9%,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19.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이 마련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 92.0%가 공감하고 있으며, 공간조성 시 예방체험관의 콘텐츠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28.0%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대구여성의 92.0%가 공감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간 조성 시 콘텐츠를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8.0%,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대응 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 프로그램과 여성폭력 대응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구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대구여성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관련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때,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의 구성과 여성폭력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함께 구현될 종합적인 여성안전 예방체험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제안

- | | |
|--------------|-----|
| 1. 결론 및 정책방향 | 101 |
| 2. 여성안전정책 제안 | 107 |

1. 결론 및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한 영역인 시민의 의견이 주요 구성요소를 작용하는 것이고, 여성안전정책이라는 점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대구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즉, 무엇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 실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여성폭력 유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여성폭력 근절이나 여성안전 정책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구여성의 여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요구하는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여성들은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보다 여성폭력에 대해서 대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들은 언론을 통한 간접경험,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여성안전사업 중에서 대구 여성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담·보호시설 운영,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심택배 서비스의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28.3%만이 인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 지하철 등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거나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을 소개하는 공간을 통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

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전문 인력 확충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구 여성들은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곽지역,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공중 화장실 등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소통 시스템도 고려할 만 하다.

넷째,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으로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의 제공도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들은 범죄발생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지만 마땅히 이에 대응해야 할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안전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생동안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66.8%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바바리맨 접촉 피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접촉 피해가 약 과반수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9년 이후 대구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17.1%의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이 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피해경험이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거리에서 피해라던가 혹은 대중교통 이용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의 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이며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리에서의 범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경험의 경우 주변의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이러한 폭력예방 캠페인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보다 명확히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 할 수 있는지를 게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섯째, 대구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의 경우는 전통적인 형태의

성적 괴롭힘 등 성폭력이 44.0%로 높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발생하였던 젠더기반 여성폭력이지만 기술력이 결합되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두려움도 17.1%로 높고,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12.2% 순으로 나타나 그 두려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여성폭력의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법촬영 또는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가 65.1%로 가장 높았고, 스토킹의 경우는 55.9%로 나타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여성폭력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덟째, 대구여성들은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을 가해자에 대해서 확실하고 엄격하게 치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여성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확실하게 겪거되고, 치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강화해야 할 여성참여의 분야로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대응능력 향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안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여성안전 관련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주는 것, 여성안전 사업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홉째, 대구여성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더불어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는 것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이 마련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여성들은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성안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폭력 대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구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대구여성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관련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때,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의 구성과 여성폭력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함께 구현될 종합적인 여성안전 예방체험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여성들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종합적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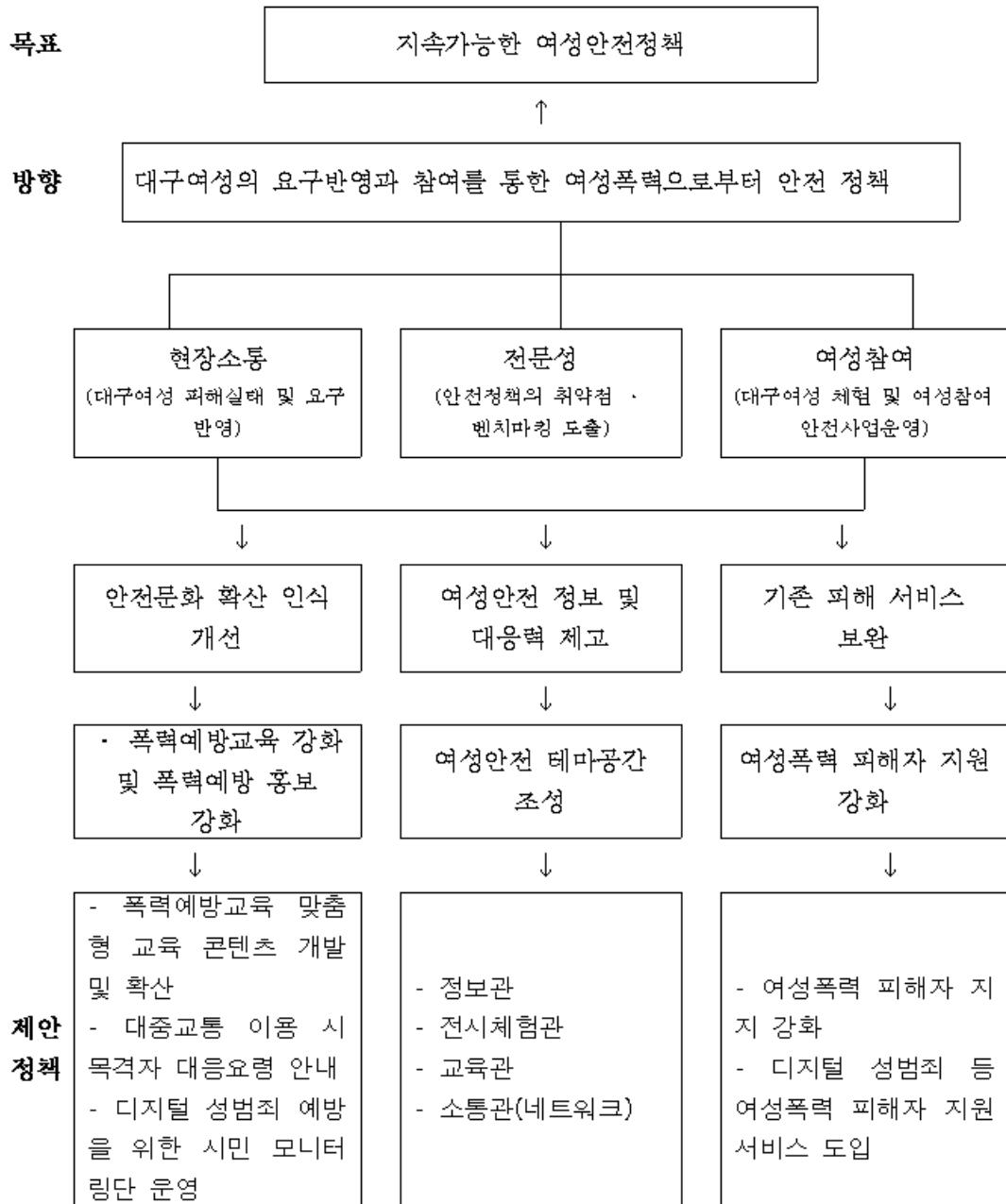
우선,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언론이나 주변에서의 피해 등으로 인한 간접경험 등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 범죄두려움은 생기고,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여성안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범죄 대응 정보가 부족할 때 더욱 범죄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범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범죄두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대응정보나 시민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범죄 발생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한 연대나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즉,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종합적인 안전문화 확산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대상별, 범죄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 양적으로 여성들의 피해가 많은 부분은 바바리맨 접촉, 대중교통 중의 불쾌한 신체접촉 등이다. 즉 이러한 피해의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폭력예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 시설을 보면 범죄방지를 위한 표어나 문구가 지하철 대합실이

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안내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등에서의 범죄발생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격자가 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이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있는 많은 시민들이 목격자로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주는 대응요령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들이 여성폭력 대응에 있어 필요한 정보, 교육, 대응방법, 안전체험,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안전 테마공간」의 조성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과 관련한 두려움 부분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고, 대응방법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여성폭력 대응력이 증가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을 통해 범죄두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안전 테마공간」의 콘텐츠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안전 정보관〉, 〈여성안전 전시·체험관〉, 〈여성안전 교육관〉, 〈여성안전 소통관〉으로 구분하여 각 실별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셋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강화이다. 대구여성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역시 고려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림 IV-1]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정책 방향

2. 여성안전정책 제안

가.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홍보 강화

1)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실태조사 결과 <표 III-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구여성들이 여성폭력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보도나 주변의 피해사례를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34.5%)라고 응답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의 부족이 25.3%, 예방정보의 부족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예방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정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여성폭력 예방이나 대응정보는 여성들이 인식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폭력 예방 또는 대응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여성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예방정보 콘텐츠는 첫째, 여성폭력예방 또는 대응 VR제작도 고려할 수 있다. VR 영상은 각종 재난이나 위험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나 폭력 상황을 VR로 재현하여 체험하게 하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위험이 제기되기에 범죄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에서 성희롱 상황에서 대응과 관련하여 VR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폭력 유형을 바탕으로 VR영상을 제작한 바는 없다. 따라서 여성폭력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4-5분 정도의 교육영상이 제작된다면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의 효과도 클 것이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의 변화계기도 될 수 있다. 또한, 대응과 관련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를 공유한다면 여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효과도 높을 것이다.

국방부, 안전문화 VR

국방부에서는 군대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성희롱 예방 VR을 제작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관련 영상은 총 2편이 제작되어 있으며, 2017년 공군본부에서 제작하여 충기점검 과정에서의 성희롱 발생상황을 사례로 하여 주변 목격자,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태도나 접근법을 설명하였음 (2020.5.22. 성희롱 예방 VR 시청하였음)



사진출처: 국방일보, 2017. 10. 24(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71025/5/BBSMSTR_000000010023/view.do

한편 이러한 VR영상의 콘텐츠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추후 여성폭력 피해예방이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연령이나 대상에 따라 폭력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연령집단에 따라서 교육대상에 따라 어떠한 폭력예방교육을 전개할 것인지 콘텐츠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표 III-28>과 같이 연령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면, 연령별로 두려움을 여성폭력 유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20-30대는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크므로 이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60대 이상의

경우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유형별 맞춤형 강의안이나 폭력유형에 따른 개념, 치별법규, 대응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중교통 이용 시 목격자 대응요령 안내

대구 여성들의 여성폭력 피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III-23>과 같이 2019년 이후 여성폭력 피해 경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이 8.6%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시 불쾌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즉, 대중교통 이용 시에 불쾌한 신체접촉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만 가해자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목격자의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지 안내한다면 범죄예방 및 대응효과가 높을 것이며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의 대응요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행동을 이야기하거나 피해자화를 강화하는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대응요령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의 행동이 대응요령으로 제시되어 마치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하게 되거나, 피해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안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서울지하철에 게시된 대응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성폭력 예방요령

2017년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부착된 성폭력 예방요령의 경우 피해자의 대응을 이야기하면서 ‘계단을 오를 때 뒤를 가린다’와 같이 마치 뒤를 의상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는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문구로 구성되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제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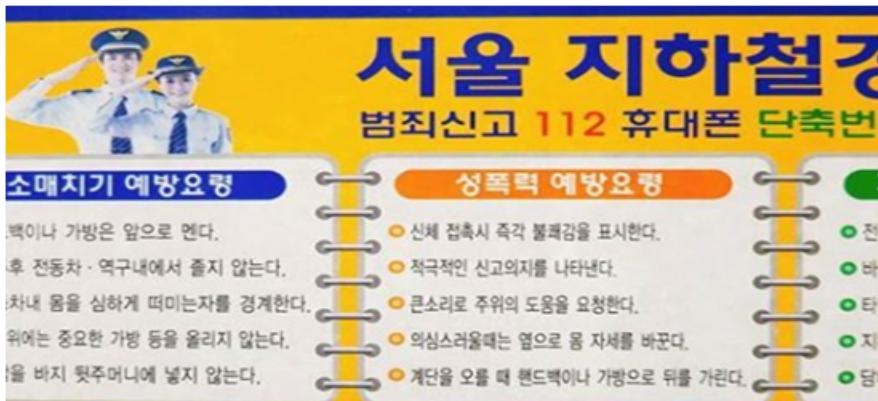


사진 출처: Huffpost, 2018.2.23

이러한 대응요령은 부적절 하며, 보다 명확하게 가해자에게는 범죄라는 인식을 주고,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촬영과 성추행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고, 피해자와 목격자에게는 신고방법,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목격자의 행동 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불법촬영·성추행 대응요령

불법촬영·성추행은 범죄입니다.

112 또는 1544-0104 (전화 or 문자)

지하철 내 비상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불법촬영·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 지하철 내 비상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신고하기
-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행동하기
-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진술하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즐거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습니다.

○ 가해자: 불법촬영·성추행은 범죄입니다.
 ○ 피해자와 목격자

- 지하철 내 비상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신고하기
-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행동하기
-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진술하기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유형에 따라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등 모니터링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하여 다양한 웹사이트를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함

으로써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학교·직장 등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는 시민들이 활동함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신고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캠페인이나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대구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니터링단의 운영은 대구여성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되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결과를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대구시 등과 공유하고, 관련 사이트에 삭제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이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대구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안전 예방체험 공간으로서 「여성안전 테마공간」 조성

대구여성들이 여성폭력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접한 적인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III-29>와 같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보는 65.1%,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대응방법은 55.9%가 대응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촬영이나 스토킹 등의 대응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도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콘텐츠가 있더라도 어디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몰라 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폭력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해 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구여성들의 안전화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 강화 분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의견제시 활동에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여성의 범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를 볼 때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소통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범죄 대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여성안전의 테마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구시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과 관련한 두려움 부분을 제안할 수 있고, 대응방법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정보 접근력이 높아지고, 여성폭력 대응력이 증가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을 통해 범죄두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안전 테마공간」의 콘텐츠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안전 정보관>, <여성안전 전시·체험관>, <여성안전 교육관>, <여성안전 소통관>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별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1) 여성안전 정보관

정보관에서는 여성폭력 발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응방법과 피해자 지원 등이 수록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여성폭력 발생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생활안전지도 치안사고 통계 검색(2020.7.9.)

또한 경찰과 정보공유가 된다면 경찰에서 접경하고 있는 여성폭력 발생 정보 등을 안내받아 이를 제공하면 보다 빠르게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폭력의 유형별로 개념, 구체적 사례, 법적 근거 및 처벌, 대응방법,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방법은 어떠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외에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다양 연구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다.

2) 여성안전 전시·체험관

여성안전 전시·체험관의 구성은 특히 여성들에게 필요한 범죄예방 관련 시설물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 조사 결과 여성들은 대구지역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 폭력 피해 사례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범죄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거나, 교육 또는 정보 전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를 여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써 여성안전 전시·체험관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안전·전시 체험관의 구성은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여성들은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CCTV설치 등 안전시스템의 강화와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면 위험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폭력 유형은 성폭력에 이어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높았다. 반면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여성안전 전시·체험관은 이처럼 여성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여성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관련 장비를 구성하고, 체험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시·체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여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잘 접하지 못해서 정보가 부족한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를 포함한 VR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체험관에서 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여성 폭력예방과 관련한 VR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상황, 장비 등을 여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한편, 이를 점검하는 장비나 도구 등도 함께 안내하여 대구시의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직접 예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실제와 같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2018년부터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불법촬영 예방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가해자에게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안전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또한 여성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심마을 만들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활용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작동되고, 기록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CCTV, 방범창, 비상벨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여성들의 여성안전 정책 이해도가 높아지고, 범죄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다.

3) 여성안전 교육관

여성안전 교육관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반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양한 집단, 계층, 연령대에 맞는 대구 시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으로써 폭력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도구나 교육매체, 연극, 뮤지컬 등을 통한 시각적, 체험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여성안전 소통관

여성안전 소통관은 대구여성, 유관기관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다. 여성안전,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소규모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할 수 있고,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소통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구여성들이 안전사업이나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견의 소통창구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대구여성들이 여성안전정책의 지향가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순으로 높았다. 또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역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대구시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선사업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뿐 만 아니라 대구시 정부는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

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피해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도입 고려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존에 발생하고 있었던 폭력과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피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피해지원으로는 충분히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기존의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중 유포피해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삭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안내 해주는 것과 같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강희영 · 문영민(2017).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장기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김민경 · 윤여창(2018).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2호: 221-251.
3. 김화임(2015). 지속가능성 개념의 형성사-1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1호:453-478.
4. 박선영외 4인(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여성가족부.
5. 박영주(20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55-82.
6. 박영주(2014). 대구지역 범죄위험성 및 대구여성의 셉티드 인식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7. 박영주(2017). 대구지역 가정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8. 박영주(2018).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9. 박영주 · 윤우석(2014). CPTED 인식이 여성의 위험인지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구지역 거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6권: 79-109.
10. 박영주 · 정희경(2018). 2018 대구 안전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대구여성 가족재단
11. 안정민 · 김슬기 · 정소영(2018).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 이미정(2019).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9.05:1-32
13. 장다혜(2019). 정책영역에서의 젠더폭력 도입의 의미와 한계.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9.05.49-52.

14. 장미혜(2016).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국
가위기관리학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5-20
15. 장미혜외 7인(2017).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Ⅱ):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 장미혜외 7인(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17. 장응혁 · 김상훈(2018).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성폭력수사 편- 박영사
18. 최 란(2018).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이슈브리프>. 젠더리뷰,
가을호
19. 여성가족부(2018). 법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성과
20. 치안정책연구소(2020). 치안전망 2020.

<인터넷자료>

1. How's life? 2020, OECD
2. Violence against women, OECD,
<https://data.oecd.org/inequality/violence-against-women.htm>, 2020.6.15.
일 검색
3. 대구지방경찰청(여성폭력 정보공개청구). 2020.6.19.: 대구지방경찰청 내
부협조자료(8.6일 기준)
4. 대구여성의전화, 2019 대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접수상담통계
5. 2016-2020년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주요업무보고
통계청. 사회조사(2018),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뉴시스, “AP통신 등 외신들,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조명,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1_0014099003&cID=10101&pID=10100, 2016.5.21.
시선뉴스, “부산데이터폭력 사건, 왜 강력한 처벌 필요한가,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08>

MBC뉴스. “그 클럽에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 뭐가 있기야” ,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4_28802.html, 2019.1.31.
채널A, “모르는 남자 들어와....여성 상대 주거침입 1,400건”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0315,
2019.12.18.

생활안전지도, <http://www.safemap.go.kr>.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http://www.cpted.kr/?c=03/0301/030101>.

통계지리정보시스템 SGIS plus, <https://sgis.kostat.go.kr/view/index>.

[부록1] 설문지

대구여성 안전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

NUM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시 출연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대구여성의 안전현황과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대구시의 여성안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대구시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5월



- 연구주관기관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일선)
- 조사관련 문의 : (주)리서치프로 (담당 조경민 연구원) / T.053-243-7736

SQ1. 거주 지역	① 동구 ② 서구 ③ 남구 ④ 북구 ⑤ 중구 ⑥ 달서구 ⑦ 수성구 ⑧ 달성군
SQ2. 나이	만 ()세

I. 안전인식

1. “대구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구는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
 ② 대구시의 범죄안전정책이 잘 수행되어
 ③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④ 경찰활동(신고 후 즉각적인 출동 등)이
 잘 이루어져서
 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
 이 높아서
 ⑥ 기타()

2)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서
 ② 피해정도가 심해서
 ③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④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
 이 없어서
 ⑤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
 안감이 높아서
 ⑥ 기타()

3. “대구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깨끗한 거리 등)
- ② 대구시의 범죄안전정책이 잘 수행되어서
- ③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 ④ 경찰활동(신고 후 즉각적인 출동 등)이 잘 이루어져서
- 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 ⑥ 기타()

2)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서
- ② 피해정도가 심해서
- ③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 ④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 없어서
- ⑤ 언론보도, 주변의 피해사례 등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서
- ⑥ 기타()

II. 대구시 여성 안전정책 인지도

1. 대구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촬영 예방점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여성안전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용	들어 본 경험 있다		들어본 경험 없다
	이용 또는 참여경험 있음	이용 또는 참여경험 없음	
1)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①	②	③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①	②	③
3)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 지원	①	②	③
4)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①	②	③
5) 대학가 안심보안관(자원봉사)의 불법촬영 점검	①	②	③
6) 대학생 안심지킴이(자원봉사) 순찰	①	②	③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부착(지하철역 등)	①	②	③
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안심마을 등)	①	②	③
9) 안심택배 서비스	①	②	③
10) 기타()	①	②	③

2. 귀하께서는 위의 10가지 사업 중 여성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 귀하께서는 향후 대구시가 여성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의 강화
- ②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을 통한 범죄예방
- ③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범죄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
- ④ 경찰 등 안전전문 인력 확충

- ⑤ 이웃, 주민 간 신뢰를 통한 안전 네트워크 강화
- ⑥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안전정책에 대한 홍보
- ⑦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처방안 등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 제공
- ⑧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 ⑨ 기타()

III. 여성폭력 직접피해 경험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용	없음	있으나 신고하지 않음	있었고, 신고하였음
1)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2)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3)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4)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5)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6)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7)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8)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2.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용	없음	있으나 신고하지 않음	있었고, 신고하였음
9) 귀하는 대구의 거리에서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0)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1)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2)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3)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4)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5)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16)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IV. 여성폭력 간접피해 경험

1.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인 중 누군가에게 발생한 다음과 같은 피해(대구에서 타인의 범죄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 포함)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	없음	있으나 신고하지 않음	있었고, 신고하였음
1) 귀하는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거리에서 바바리맨(성기 노출자)과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2) 귀하는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중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3) 귀하는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4) 귀하는 대구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적 촬영물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5) 귀하는 대구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적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6) 귀하는 대구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쫓아다님이나 전화 등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7) 귀하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인 중 누군가가 대구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8) 귀하는 대구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배우자)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2.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의 범죄자 또는 범죄유형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바바리맨 ② 성추행 ③ 불법촬영 및 유포 ④ 데이트폭력 ⑤ 지

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 ⑥ 성폭력 ⑦ 가정폭력 ⑧ 기타()

3. 귀하는 범죄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바비리맨 접촉 시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2) 대중교통 이용 중 성추행 범죄 발생 시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3) 불법촬영 또는 유포(디지털 성범죄)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4) 데이트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5)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6) 성적 괴롭힘 등 성폭행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7) 가정폭력 대응방법	①	②	③	④

V. 여성안전정책 수요

1. 여성안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
- ②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 ③ 여성혐오
- ④ 신고 된 사건이 확실히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
- ⑤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
- ⑥ 약한 처벌
- ⑦ 기타()

2. 귀하께서는 대구시의 여성안전정책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
- ② 사회전반의 평등 실현
- ③ 상호 존중의 사회문화
- ④ 제도 및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
- 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

- ⑥ 시민들의 참여
 - ⑦ 범죄예방 및 대응 정보의 공유(범죄발생, 예방 정보 등)
 - ⑧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재범방지 교육
 - ⑨ 범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의 도입(호신술 교육 등)
 - ⑩ 기타()
3. 대구의 여성안전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여성 참여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여성의 관점과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 활동 참여
 - ②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대상 교육 참여
 - ③ 안전관련 전문 직종에의 여성의 진출 확대
 - ④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사업에의 여성 참여
 - ⑤ 관련 전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체계에서 여성의 참여
 - ⑥ 여성의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 ⑦ 기타()
4.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여성혐오에 대한 대책
 - ②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 ③ 친밀한 관계의 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 ④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강화
 - ⑤ 종합적인 여성안전 정책의 마련과 정책 홍보
 - ⑥ 기타()

VI.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체험공간 조성관련 생각

1. 귀하는 대구에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폭력 실태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 관련 정보 제공하고, 범죄대응 능력 향상 체험 활동, 범죄예방 장비 전시 및 사용방법 등을 제공하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여성안전을 위해 여성폭력 예방체험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범죄예방체험관 관련 비용(무료 우선)
- ② 여성범죄예방체험관 접근 용이성(교통편)
- ③ 여성폭력 예방체험 공간 운영자의 역량
- ④ 여성범죄예방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 ⑤ 여성범죄 예방체험관의 콘텐츠(이용 가능한 정보, 시설 또는 교육 등)
- ⑥ 기타()

3. 귀하는 여성안전을 위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제공 서비스로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여성폭력 통계 등 정보의 제공
- ② 여성폭력의 심각성, 범죄예방의 중요성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③ 호신술 교육 등 여성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공간
- ④ 범죄예방장비 전시 및 사용방법 안내
- ⑤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의 활동지원 공간
- ⑥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자를 위한 지원안내
- ⑦ 기타()

VII. 인구사회학적 특징

1. 귀하의 혼인 상태는?

- ① 미혼
- ② 기혼동거
- ③ 기혼별거
- ④ 기혼사별
- ⑤ 이혼
- ⑥ 기타()

2. 귀하의 거주 상태는?

- ① 1인 거주
- ② 2인 이상(부모 등 가족)
- ③ 2인 이상(친구 등 지인)
- ④ 기타()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재학포함)
- ③ 2년제 졸(재학포함)
- ④ 대졸(재학포함)
-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거주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원룸 등 다세대 주택 ② 단독주택 ③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④ 상가
 ⑤ 기타()

5. 귀하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습니까?

년 개월

6. 귀하와 귀댁의 월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100만원 이하	101만원 ~ 200만원	201만원 ~ 300만원	301만원 ~ 400만원	401만원 ~ 500만원	501만원 ~ 600만원	601만원 이상
1) 본인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구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②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대학/대학원생
 ⑤ 기타()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과제 2020-01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정책 개발 연구

2020년 8월 31일 인쇄

2020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정 일 선

발행처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1층)

TEL. 053.219.9970 FAX. 053.219.9979

인쇄처 : 포 이

TEL.070.7533.3295

ISBN : 979-11-91097-00-9

〈비매품〉

이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무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1층(태평로2가)
TEL 053-219-9970 FAX 053-219-9979
www.dwff.or.kr

9 791191 097009

ISBN 979-11-91097-00-9

